

## 키워드로 읽는 대중문화사 가이드북

*Korean Pop Culture History Through Keyword Guidebook*



### 8. 지배와 저항, 운동으로서 대중문화(1980-1987)

교수자: 안승범

|     |                          |
|-----|--------------------------|
| 1차시 | 들어가기                     |
| 2차시 | <애마부인>과 해태 타이거즈          |
| 3차시 | 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3S 정책과 컬러TV |
| 4차시 | 민중문화운동                   |
| 5차시 | 정리하기                     |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K-CULTURE-STORY CONTENTS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 강의 개요

|          |                                                                                                                                                                                                                                                                                                                                                                                                   |                                    |
|----------|---------------------------------------------------------------------------------------------------------------------------------------------------------------------------------------------------------------------------------------------------------------------------------------------------------------------------------------------------------------------------------------------------|------------------------------------|
| 주차명      | 지배와 저항, 운동으로서 대중문화(1980-1987)                                                                                                                                                                                                                                                                                                                                                                     |                                    |
| 학습목표     | 198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
| 강의방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PPT슬라이드와 오디오<br><input type="checkbox"/> 인터뷰 촬영 <input type="checkbox"/> 대화 촬영 <input type="checkbox"/> 현장 촬영                                                                                                                                                                                            |                                    |
| 강의언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자막언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중국어 <input type="checkbox"/> 수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프랑스어)                                                                                                                                                                                                              |                                    |
| 차시       | 차시명                                                                                                                                                                                                                                                                                                                                                                                               | 학습내용                               |
| 1        | 들어가기                                                                                                                                                                                                                                                                                                                                                                                              | 주차 소개<br>주차 핵심단어 소개                |
| 2        | <애마부인>과 해태 타이거즈                                                                                                                                                                                                                                                                                                                                                                                   | 영화 <애마부인><br>프로야구 문화의 시작           |
| 3        | 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3S 정책과 컬러TV                                                                                                                                                                                                                                                                                                                                                                          | 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야만의 시대<br>3S 정책과 컬러TV |
| 4        | 민중문화운동                                                                                                                                                                                                                                                                                                                                                                                            | 대중문화와 민족주의<br>청년문화와 민중가요           |
| 5        | 정리하기                                                                                                                                                                                                                                                                                                                                                                                              | 이번 주차 정리<br>다음 주차 소개               |
| 학습<br>활동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영상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읽기 자료(pdf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퀴즈 등 연습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토의<br><input type="checkbox"/> 시연 및 현장 방문 <input type="checkbox"/> 실습(실험, 시뮬레이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 과제 <input type="checkbox"/> 협력 과제<br><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유튜브 링크 제공 등) |                                    |



## 8. 지배와 저항, 운동으로서 대중문화(1980-1987)

### 1차시 | 들어가기

한류와 K-콘텐츠 열풍의 배경과 기원을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찾아보는 강의, 키워드로 읽는 대중문화사' 오늘은 8주차 강의로 '지배와 저항, 운동으로서 대중문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강의 시간에는 제5공화국 시기, 그러니까 한국의 헌정사에서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신군부 전두환 통치기의 대중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수치화, 개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만 보면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등 외관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5월 18일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을 강경하게 진압함으로써 전두환이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980년, 빗고을의 봄엔>

저는 80년대 조선대학교 학생이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요.

형제들은 광주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과 해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인지할 수 있었어요.

#1980년, 빗고을의 봄엔

# 정도용 / 오월길 안내 해설사

여기(광주)서 한 시간 정도 통근을 했는데. 함평에 있는 학교에.

출근을 하고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버스를 전부다 차단을 하고 그래서.

# 김향순 /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해설사

제가 살고 있는 해남 그 외진 시골 동네로 광주 시내버스가 한 대 들어와서

오랫동안 가지 않고 한자리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해남읍에서 나주까지만 버스가 다녀서, 광주로는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엄마께서) 나주에서부터 광주까지는 걸어 들어가서 양림동에 살던 언니와 오빠를 다시 산길을 통해서

거의 피난을 오듯이 다시 나주까지 걸어와서 해남으로 항쟁 기간 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 김용철 / 문화 관광 해설사

그때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학생 누구나 다

지금은 구 도청이 된 전남도청 앞에 나와서 민주를 외쳤고

계엄령 해제하라고 외치고, 계엄군한테 돌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시위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5월 21일 집단 발포 때는 옆에서 총 맞는 모습도 봤습니다.

상황이 급박했고 비참했던 상황도 많았던 것 같아요.

# 5.18 해설사

# 5.18 해설사가 된 이유



광주에 살면서 광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5.18에 대한 부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채감,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해설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관련되신 분들에게 부채감의 의식과 미안함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설사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5.18 민주화 운동이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의의라고 한다면은 민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민중이 하나의 역사의 장면에 역동적으로 등장을 해서 민족사회에 하나의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과거에만 머무는 역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기능하는 부분들이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 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민주공화국이라고 표명한 한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군부에 의해 잔학하게 사람들이 죽어간 사건이에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래세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교훈과,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거 같아요.

#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

요즘에는 택시기사(택시운전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했고 많이들 찾아옵니다.

저는 기쁘게 생각해요.

젊은 세대들은 폭동이나 사태라는 단어보다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교육의 결과이기도 하겠고.

진실규명이 되면서 타 지역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어나는 덕분인 것 같아요.

# 5.18 민주화 운동의 미래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진상 규명이 되면 책임자 처벌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몇 사람들만 처벌을 받게 됐는데,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예 회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광주사람들은 다 폭도, 빨갱이라고 아직도 인식하고 있는데, 진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무서웠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군부였지 않나 생각 들어요.

아직도 뻔뻔스럽게 살아서 왜곡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5.18의 민주화 운동은 한 시대의 고통스러운 역사의 좌절로만 치부할 것은 아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발전을 해야 하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

저희 5.18 해설사들은 광주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학생들이나 탐방객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언론 통폐합부터 시작합니다. 박정희가 국민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했던 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택한 결정이었죠. 그러나 대중문화에 대하는 전두환의 구상은 박정희의 방식과 비슷하지만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대중문화는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전략적인 실천이 충돌하고 교접하는 장,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전두환 정권 시기 지배와 저항 운동으로서 대중문화가 어떤 역동성을 확보해 갔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때 언급할 주요 키워드는 '애마 부인과 해태 타이거즈', '언론 통폐합과 보도 지침', '3S 정책과 컬러TV', '민중문화운동' 입니다. 저의 가장 먼 기억들을 더듬어가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수업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또 다른 성격을 성찰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 2차시 | <애마부인>과 해태 타이거즈

이번 차시는 '애마 부인과 해태 타이거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마 부인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업을 잘 들었다면 박정희 정권 때 대중문화계의 퇴폐주의라든지 향락주의가 발붙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내막을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폐와 향락은 주관적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두환 시대에는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그 이 퇴폐나 향락이라는 이 사실은 이 군부 정권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억압적인 정권이 물러간 다음에는 국민들한테 그 다음 정권이 유희책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전두환 역시 5.18 민주화 운동을 강압적으로 진압한 끝에 정당성이 없이 집권한 정부였기 때문에 통제와 억압의 방식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대중문화를 돌려싸고서는 일정 부분 규제를 푸는 방식도 택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전략은 전두환이 명시적으로 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에 놓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관심을 자극적인 대중문화에 돌려 돌리려고 백성들을 우민화하는 정책을 실제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두환 정권의 대중문화에 대한 정책들이 큰 틀에서 그러한 기조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입니다. 이른바 3S 정책을 음지에서 펼쳤다고 보는 편이죠. 여기서 3S란 스크린, 스포츠, 섹스를 말하는데요. 영화 '애마 부인'은 '전두환의 스크린 정책을 대변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S 정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애마 부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82년 2월에 첫 상영이 되는데요. 전두환의 스크린에 관한 유희 정책의 첫 산물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마 부인은 개봉 직후에 국산 영화 중에 흥행 1위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1996년까지 동명의 영화 시리즈가 13편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 40대, 50대, 60대, 이런 나이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에로 영화의 대명사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파리 애마', '짚시 애마', 이런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애마 부인의 아류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작품들이 양산될 정도로 처음 등장했을 때의 충격파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애마 부인의 속편들은 상당수가 선정성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류작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저급한 에로 영화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에로 영화를 명시적으로 장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전두환의 영화 산업에 관한 유희책이 에로 영화 붐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섹스 산업, 그러니까 성 산업의 반응을 방관한 정책 기조와 미묘하게 시너지를 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외국 수강생들은 더 놀랄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1982년에 이르러서야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소위 밤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전두환 정권을 지나는 동안 유희 산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로 영화 붐과 유희 산업의 확대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애마 부인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애마인데요. 남편을 둔 유부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치는 않았고요. 사업을 하던 남편이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좋지 않았고요. 급기야 남편이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8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애마는 시댁의 자식을 그때 빼앗기게 되고 더욱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는 가부장적 환경에서 고통을 받지만, 그럼에도 남편을 떠나지 못하고 남편 면회를 계속적으로 다닙니다.



다. 주변 사람들은 이혼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죠. 흥미로운 지점은 애마가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캐릭터라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외로움과 성적 욕망이 고통받던 그녀는 성적 일탈과 정절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위 행위로 음욕을 풀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하죠. 이후 그녀는 옛 애인과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폭압적인 태도에 고통을 받죠. 그러다가 공예를 하는 예술가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마는 남편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공예를 하는 예술가가 '함께 프랑스로 떠나자'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응할 것처럼 애마도 하지만, 그 날이 남편이 출소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애마는 남편을 만나러 남편 곁으로 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애마 부인 이전에 여성의 성을 다룬 영화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약자로서 희생을 감내하는 호스티스 물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극단적인 소외를 받게 되는 이른바 '여성 수난 서사'가 주를 이뤘었습니다. 그러나 애마 부인이 세상에 나오면서 여성 역시 남성처럼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스크린이 운변하기 시작했고 가정의 부속물이 아니라 이 여성이 '자기 욕망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 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기에 이릅니다. 물론 1950년대 대중문화사를 다룰 때 언급했던 '자유부인'이라는 영화처럼 애마도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가족관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고 그것과 타협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마는 특징이 있죠. 이 애마 부인을 쉽게 '3류 예로 영화다'라고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폄하될 수 없는 부분을 이 영화는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주변부의 이야기를 하면 애마 부인에 출연한 주인공 안소영이라는 배우는 이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여준 이미지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이후에 다양한 영화에서 활약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1980년대에 새로운 여배우들이 출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도 할 수 있어요. 1980년대 영화의 새 얼굴이 된 이미숙이라든지 원미경이라든지 또는 이보희라든지 이런 배우들이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었던 것은 안소영이 만들어준 어떤 상상적인 무대, 허구적인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애마 부인의 등장과 이후 예로 영화 붐은 전두환 시대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장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해태 타이거즈 왕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S 정책의 일환으로 전두환은 프로 스포츠를 적극 장려합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연고지 제도를 정착해서 처음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에서는 고교 야구에 대한 인기가 상당했거든요.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 그 동네분들, 그 다음에 그 동네에 하숙하던 학생들이 몰려와서 고교 야구 결승전 이런 거 볼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같이 봤던 그런 기억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 고교 야구도 각 지역의 명문고들끼리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연고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경쟁 체제 때문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고교 야구의 인기의 구조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프로야구가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그때의 어떤 혈연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귀속력이 강한, 그런 귀속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때문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프로야구 팀들은 지역민들에게는 곧 지역의 정체성, 또는 지역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곧바로 상징하는 그렇게 변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해태 타이거즈는 당연히 호남 또는 광주 지역의 시민들에게 대표성을 갖는 그런 어떤 구단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광주에 있는 무등경기장을 홈 구장으로 쓰면서 해태 타이거즈는 20년 동안 지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구단이었는데요. 이후에는 모 기업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기아자동차가 팀을 흡수해서 기아 타이거즈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제가 해태 타이거즈를 언급하려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3S 정책 중 스포츠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당시 정치사의 굴곡이 해태 타이거즈의 역사 안에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태는 프로야



구를 창단할 만큼 자금력을 갖춘 구단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의 삼성 이런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기업의 규모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호남을 대표하는 프로야구 팀을 만들지 않고 리그가 출범한다면 호남 소외론이 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은 해태가 프로팀을 꾸리는 것을 찬성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 해태 타이거즈는 제대로 선수단을 꾸릴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프로야구팀을 창단할 때 그 창단 멤버가, 선수 숫자는 15명이었어요. 우리 프로야구 한 경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선수 숫자를 생각했을 때 이 15명이라는 선수단 규모는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창단 첫 해에는 선수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투수가 창단 때에 다섯 명밖에 없었는데요. 이 다섯 명으로 긴 시즌을 꾸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즌 초반에 감독과 코치 사이의 불화로 감독이 팀을 떠나고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치르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훗날 한국 프로 야구사에 기록될 만한 업적을 쌓게 되는 김성한이라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타자로 유명한데 프로야구 원년에는 선발 투수와 타자를 겸하기도 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진정한 역사는 프로야구 출범 2년 차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실 2년 차 때에도 상대적으로 선수 보강에 실패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 유학과 김응용 감독이 부임하면서 선수단의 어떤 기틀이 닦였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2년 차 성적은 기적 같은 우승이었습니다. 선수단 규모도 작고, 선수단에 대한 투자도 부족하고, 처우도 선수에 대한 처우도 형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정희 정권 이후 소외되어 온 호남민들의 자긍심을 세워줬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에 부산, 울산, 대구, 구미, 포항, 이 등지에 많은 공장지대가 세워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당시로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그곳을 통해서 많이 확보가 되었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것은 물론이지만 도로가 닦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관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훨씬 더 잘 갖춰지게 되죠. 상대적으로 호남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런 호남민들의 억눌린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또 번번이 고배를 계속 마시는 상황이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호남민들이 '우리는 차별받고 있어, 소외되고 있어' 라는 의식을 갖기가 쉬웠는데 그때 이 해태 타이거즈의 우승은 상당히 그들의 어떤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억눌린 마음을 풀어주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1986년부터 해태 타이거즈는 해태 왕조라고 불릴 만큼 무적의 팀이 됩니다. 1986년부터 89년까지 무려 4년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고요. 90년 한 해를 건너뛰었을 뿐, 91년, 93년, 96년, 97년 계속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죠. 그러다가 2천년대 들어서 경영난이 더욱 극심해지니까 이모 기업이 운영에 손을 떼면서 해태 타이거즈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해태 타이거즈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어지는 동안 투지 넘치는 스타들로 가득한 구단이었고 팀 성적에서도, 또 개인 성적에서도 월등했던 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타들을 보유했었죠. 아마 그 스타들이 다른 팀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해태'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과 광주를 연고로 하는 해태 타이거즈의 대표성, 그리고 그런 해태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데 일조했던 것 같아요. 충성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태 타이거즈가 양지에서 거둔 영광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해태 타이거즈 관해서는 잘 이야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비사가 있습니다. 풀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그중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호남은 그리고 광주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직접적인 소외와 차별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군다나 80년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참극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김대중이라는 호남 출신 정치인에게 호남 사람들이 긴 세월 열렬한 지지를 보낸 것도 그들이 경험한 차별과 서러움의 깊이 때문일 수 있는 거죠. 김대



중은 박정희 정권 당시 억울하게 대선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번 한 끝 차이로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는데요. 군사 정권에 의해서 여러 번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김대중을 통해 꿈을 꿔던 호남인들은 그 서글픔과 서러움과 분노, 절망감, 이것을 해태 타이거즈를 통해서 풀었고 해태 타이거즈는 무등 경기장에서 그런 어떤 호남민들의 서러움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이런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태어났고 또 해태 타이거즈를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터라 광주 시민들이 해태 타이거즈 경기에서 빈번하게 불렀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 노래가 제가 대중문화사를 이 수업의 초반에 제가 다뤘던 잠깐 언급했었거든요. 이난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이 해태 타이거즈 응원가로서 그 무등 경기장에서 시민들이 엄청 많이 불렀어요. 이 목포의 눈물을 합창하면서 승리를 갈망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야구 경기 응원가로서 목포의 눈물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곡입니다. 서글픈 심파 조의 트로트가 경기 중에 합창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정치인 김대중을 향한 광주 시민의 애정과 응원, 아픈 역사를 딛고 이뤄서고 싶은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그 노래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은 어려운 형편과 서글픈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의 소학교에 입학해서 목포 상고까지 이렇게 졸업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이라는 이 노래는 호남인들에게 흔한 유행가나 뻔한 응원가가 아니라, 광주시민의 정체성, 광주 시민이 꿈꾸는 다른 어떤 꿈,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어떤 그런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비사가 있습니다. 1982년 원년부터 1999년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2천년대가 열리기 전까지 해태 타이거즈는 5월 18일 날에 광주에서 경기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 흠 경기를 갖지 못했을까요? 그날은 광주 사람들, 호남 사람들의 마음 속에 너무 큰 슬픔과 고통, 분노가 들어선 날입니다.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때 당시 신군부에 의해서 시민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5월 18일이 되면 야구장에서 광주 시민들이 집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태 타이거즈의 흠 경기는 긴 세월 광주에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해서 그 내막이 더 정확하게 드러났는데요. 국군보안사령부가 5월 18일 광주 지역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일정을 조정하라고 지시를 내린 문서가 발견된 거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2000년 5월 18일 광주에서 흠 경기가 처음 열리기까지 해태 타이거즈의 5월 18일 경기의 전적은 9승 2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선수들도 '절대로 져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는 거죠. 해태 타이거즈에 대한 기억을 다룬 책 '해태 타이거즈와 김대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해태는 최강이었지만 가장 약한 자들의 영웅이었고 강자였지만 가장 약자의 방식으로 싸웠고 승자였지만 패자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해태 타이거즈가 광주 시민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를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길게 드리운 채 몇 사람만 모여 앉아도 정보기관원의 뱀 같은 시선을 느끼며 숨죽여야 했고 해가 뜨면 내 가족, 내 친구의 피가 얼룩진 거리 위에서 또다시 비굴하고 피곤한 삶의 좌판을 벌어야 했던 광주 시민들 그들에게 무등 경기장은 유일하게 수천 명이 모여 앉아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질러 볼 수 있는 곳이었고 그들에게 해태 타이거즈는 서러운 패배와 차별의 굴레를 벗고 승리의 희열과 부러움의 눈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아마 부인과 해태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전두환 정권 시절 대중문화에 대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정치사적 성격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차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당대의 사회 분위기와 대중문화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차시 | 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3S 정책과 컬러 TV

이번 차시는 '언론 통폐합과 보도 지침', '3S 정책과 컬러 TV'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통폐합과 보도 지침'에 대한 부제를 저는 '야만의 시대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매스미디어 통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1980년 11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시행한 언론 통폐합입니다. 전두환이 내세운 명분은 언론사들을 구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가 난립해 있으나 있으나 공영방송 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인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전두환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해직시키고 보도 내용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제어하려 한 것이죠. 이때 신문과 방송, 통신 경영 금지 제도가 생겨납니다. 언론 통폐합의 전개 과정을 보면 좀 기가 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1980년 11월 12일 저녁이었죠. 보안사령관의 면담과 강연이 있다고 해서 언론사 사주들을 모두 불러내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서울 지역 13개 언론사 발행인과 경영주 17명은 보안사령부에서 직접 각서를 쓰게 됩니다. 지방 언론사들은 지역 보안 부대가 각서를 종용했죠. 그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가혹행위도 자행이 되었습니다. 도합 45개 언론사주들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그 각서의 내용은 언론사를 조건을 달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각서 내용 중에는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있었죠. 언론 통폐합 정책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후 이틀 뒤에 시행됩니다. 언론 통폐합 결과 벌어진 일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일간지가 7개에서 6개로 줄었고요. 경제지 있죠. 경제지도 4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지방지의 경우에는 '한 개 도에 한 개 신문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14개가 원래 있었는데 10개로 줄어들게 되고요. 합동통신, 동양통신 등 두 개의 통신사가 연합통신에 흡수되어서 단일화되었습니다. 중앙언론사의 지방주재 기자와 지방 언론의 중앙주재 기자가 폐지됨으로써 모든 언론사가 다른 지역의 뉴스는 연합통신망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요. 언론을 전두환 정권의 효율성,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언론을 조정 한 것이죠. 한편 삼성의 소유였던 TBC TV가 KBS로 강제 통합되어서 KBS 2 TV가 되었고, MBC의 경우 통폐합은 면했지만 주식의 65%를 KBS가 소유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삼성의 TBC와 동아일보가 소유했던 DBS가 KBS에 흡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방송국과 신문사 등의 수많은 임직원들이 갑자기 정리해고되는 사태를 초래했고, 그로써 이 언론계, 방송계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공영방송 체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정권의 이 경우에는 사실상 방송을 국유화하고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통제하기 위한 초석을 닦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다스리기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TBC 동양방송 고별 방송으로 편성된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프로그램에서 생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된 스타 가수 이은하가 눈물을 흘리게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눈물이었죠. 그런데 이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 동안 방송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생방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에서 울거나 당황한 표정을 짓거나 하는 연예인은 비단 이은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다시 보신다면 그때 당시 그 연예인들의 표정을 통해서 이 사태가 얼마나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권위주의 시대의 독재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는 보도지침의 존재와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려서 그에 따라 기사를 쓰게 하는 것은 현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언론 통폐합을 강압적으로 진행한 전두환은 12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고 언론의 일상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문화공보부 산하에 홍보 조정실을 신설합니다. 홍보 조정실은 각 언론사의 기사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기사 내용을 압박할 때에는 국가안전기획부나 국군보안사령부, 경찰정보국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홍보조정실 배후에는 대통령 비서실 산하 정무수석 비서관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 모든 언론에 어떤 언론으로 나가는 내용들을, 그리고 또 그 내용의 비중, 그 내용의 뉘앙스까지도 다 통제를 했던 것이죠. 기사 내용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디테일했는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기사의 내용과 형식이 진실을 말한 것인지 아닌지를 단순 판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단순 업무였죠. 그리고 기사의 내용과 성격, 문투까지 자세하게 정권이 규율했습니다. 신문 지면 어느 페이지에 어떤 규모로 이 내용을 실을 것인지 또는 제목에 어떤 특정한 표현을 넣거나 빼야 할지 이런 내용들, 이것까지도 정권이 그걸 통제하고 간섭했죠. 지금은 8시 뉴스가 가장 메인 뉴스처럼 느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시 뉴스가 가장 메인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파급력이 가장 큰 뉴스는 9시 뉴스였는데요. 이 9시 뉴스의 경우 큐시트를 미리 검열했고, 그때 당시 큐시트 안에서 어떤 제목과 내용에, 실제로는 자막의 크기나 형식까지도, 또 자막과 그림 사이의 배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열을 했습니다. 대본도 당연히 사전에 심의를 했죠. 그리고 보도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이 국가기관에 끌려가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기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거나 그들을 길들이기 위한 어떤 다양한 편법들을 동원하는 것, 이것들도 다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정권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억압적 국가 장치, 그러니까 행정이라든지 군대 경찰 감옥, 이런 수단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종교나 교육, 문화, 언론, 이런 것들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혹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를 효율적으로 장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는 명시적인 폭력과 강제를 통해 작동하고 후자 곧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알튀세르는 이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호명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의 언론 통폐합과 보도 지침은 5공화국에 맞는 인간상을 호명하는 방식, 그리고 국민이 그 상상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규율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이 '땡전 뉴스, 땡전 뉴스' 하는 말들을 기억합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당시 저녁 9시 뉴스는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가 디지털 시계처럼 영상에서 초침이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 시계가 9시를 정확히 딱 가리키면 "땡"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앵커의 첫마디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땡전'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뉴스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앵커의 첫 멘트인 전두환이라는 이름의 첫 글자가 합쳐져서 땡전 뉴스가 된 거죠. 이러한 말들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회자됐다는 것은 이때의 뉴스를 얼마나 희화화했었는지 그리고 그 보도 가치를 한마디로 땡전에 비유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폄하했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유튜브 등에 그때 뉴스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숨 막히는 어떤 시대로 돌아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 제 나이로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뉴스를 보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는 '3S 정책과 컬러 TV'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언론 통폐합과 보도 지침 시대의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의 관계는 3S 정책이라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함으로써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앞에서 애마 부인을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3S 정책은 간접적으로 또 은밀하게 행사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두환은 전략적으로 강하게 지배하고 통제할 영역과 너그럽게 규제를 풀어야 할 영역을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3S의 영역은 억압과 통제, 규율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돌릴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정책이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3S 정책 중 하나인 스크린의 영역을 먼저 살펴볼까요. 전두환은 통금 해제와 중고등학생 교복 및 두발 자유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심야 극장을 개관합니다. 이때가 1982년 3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는 유흥업의 확대를, 일종에 열어주죠. 그 공간을 열어주죠. 심야 극장에서 상영된 1호 영화가 앞에서 설명한 애마 부인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과 내용은 1974년에 제작된 프랑스의 에로 영화 엠마뉴엘 부인'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밝혔지만 애마 부인의 흥행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이후에 에로 영화는 여성 욕망의 발현을 앞세워서 더욱 자극적인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에로 영화를 두고 이연호는 '도시형 유한부인들의 탈선과 토속형 시골 처녀들의 탈선이 큰 흐름이었다' 라고 이렇게 두 갈래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일면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었던 이런 영화들이 붓물 터지듯 쏟아지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폐와 향락을 굉장히 멀리 하려고 했고 이것은 굳이 표현하면 엄숙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대중문화 안에서도 이 엄숙주의를 추구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의의 표현이라든지 뭐 그와 관련된 어떤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할까요. 이런 장면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검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시청자 또는 관객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잘려 나갔을 테니까요. 그러나 전두환은 그런 검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완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완화가 간접적으로 3S 정책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3S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의 에로 영화 제목들을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이게 1980년대 초의 영화들이거든요. 모두 '육체의 문',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라', 무릎과 무릎 사이', '흠친 사과가 맛이 있다.', '뼈와 살이 타는 밤', 피조개 물에 오르다' 이들 영화는 모두 3류 저질로 매도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영화는 당대 대표 감독, 대표적인 배우가 출연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도 이 중에 있습니다.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의 경우에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한국에서 원로 감독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진우 감독이 연출했으며 윤정희, 문희, 남정임이라는 19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가 지나간 다음에 혜성처럼 등장한, 그래서 1970년대에 새롭게 부상한 신 그 여배우 트로이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맨 앞에 있었던 정윤희가 출연한 작품이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정윤희와 동시대의 인기를 끌었던 아까 제가 신 여배우 트로이카라는 표현도 썼는데 유지인이나 장미희 같은 배우들도 당시에 이런 에로티시즘을 다룬 영화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이연호의 구분에 따르면 토속형 시골 처녀들의 탈선을 다룬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윤희는 이 영화로 대중상에서 아까 제가 대중상 영화제 이야기를 조금 했죠. 대중상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합니다.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영화 쪽에서 어떤 경향과 흐름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1970년대였다면 상상하기 힘든 영화 제목과 내용, 표현 등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높은 수준의 영화가 과감하게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상황은 적잖은 문화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전두환 정권의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3S 정책 영역 중에서 가장 명시적인 육성 분야였습니다. 1980년 봄 전국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고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었기 때문에 전두환은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위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큰 이벤트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서게 되는 거죠.

<다시보는 대한뉴스 (88.08.10)>

# 제24회 서울올림픽 개막식, 1988 대한뉴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박세직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국제올림픽 위원회 사마란치 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관중들이 만들어보인 화합의 뜻은 하모니의 글자를 새기는 가운데 역대 올림픽의 한국인 메달리스트들이 올림픽기를 들고 나와 제양했습니다.



제24회 대회를 상징하는 2,400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라 평화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육상인 손기정 옹으로부터 성화를 받은 임춘애 선수가 운동장을 한바퀴 돈 다음 성화대에 이르러 성화점화자 3명에게 넘기자 성화대 아래부분이 곧 승강기로 변해 성화로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체육교사인 정선만 씨, 마라톤 선수 김원탁 씨, 그리고 서울예고 학생 손미정 양 등 세명의 보통 사람들이 태양의 불을 성화로에 옮겨 붙였습니다.

인간사회를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작업으로 천여 명의 태권도단이 송판 격파 묘기를 보였습니다.

허물어진 벽 위로 정적이 흐른 다음 어린이가 나타나 굴렁쇠를 굴려 땅을 고름으로써 새싹이 쏟아날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1200명이 놀이터를 이룬 새싹에서는 줄넘기, 바람개비 돌리기, 제기차기 등을 하며 관중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지구촌의 온 가족이 마침내 <손에 손잡고>를 부르며 한 마당에 섰습니다.

서로 미워하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며 다투지도 말자는 오십억 인류의 한마당,

이번 서울올림픽은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 속에서 인류의 꿈 올림픽의 이상을 표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축제입니다.

별의 단합된 정성이 응집된 이번 대회는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이룩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자 100m 결승 경기가 트랙에서 실시되겠습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237개 금메달 가운데 가장 관심 모은 세계대회

육상 100m 결승전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9초 79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골인하였으나,

약물복용이라는 치욕의 결격사유로 금메달을 박탈당해 미국의 칼 루이스에게 우승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이번 서울올림픽 대회는 많은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기록을 냈으며

당초 기대를 모았던 스타 선수들이 부진한 반면, 무명의 신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소련과 동독이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메달 경쟁에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4kg급 경기에서 김영남 선수가 결승전에서 소련 선수 투를리하노프에 역전승을 거두고

우리나라 선수 중 첫 금메달 감격을 안았습니다.

68kg급의 김성문 선수는 은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레코로만 52kg급의 이재석 선수와 62kg급의 안대현 선수, 그리고 82kg급의 김상규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땀습니다.

추석날 밤은 국민의 기대 속에서 거행된 유도 62kg급의 결승전에서 김재엽 선수는 미국의 아사노 선수를 이기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음날 밤 65kg급에서 이경근 선수 역시 폴란드의 야나츠 파블로프스키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추가하였습니다.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전병관 선수는 역도 52kg급에서 모두 260kg을 들어올려 32년만에 한국인 첫 은메달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역도 82.5kg급의 이형근 선수도 동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격의 간판격인 차영철 선수는 남자 소구경 소총복사에서 702.8점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체조 개인 종목 띠플에서 2차 시기 10만점으로 든 박종훈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로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차지해,  
한국 체조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지원도 상당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런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두환은 이를 통해서 한국의 발전상을 만방에 알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부적으로 심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림픽 유치에 대한 지지율이 9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 남한의 국력이 그런 정도의 스포츠 행사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튼튼했는가, 충분했는가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시 한국의 국력에 비해서 큰 스포츠를, 큰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하면 된다 식의 정책을 밀어붙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내에 빈민 거주지를 없애라는 특명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손님이 올 텐데 서울 지역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풍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달동네 재개발이 추진되고 주민들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와 프로씨름, 프로축구 등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연이어 출범합니다. 프로야구가 제일 먼저 1982년에 출범했고요. 프로축구는 1983년에 출범합니다. 물론 완전한 프로화라고 보긴 어렵지만 농구대잔치가 출범한 것도 1983년이구요. 한국 배구 슈퍼리그가 탄생한 것도 1984년,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앞에서 해태 타이거즈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역 연고제를 기반으로 탄생한 프로야구의 인기는 초창기부터 상당했습니다. 전두환은 1982년 3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막을 올린 MBC 청년과 삼성 라이온즈 간의 프로야구 개막식에 시구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포츠의 프로화가 전두환 정권에게 어떤 득실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입장은 못 됩니다. 어쩌면 전두환이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태 타이거즈의 인기가 전국적으로 높아지자 신군부에게도 눈엣가시였던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전두환의 스포츠 정책은 순수하게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세계화, 그 부분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스포츠 용품 산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을 더 폭넓게 갖게 됐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의 스포츠 정책은 순수하지 않은 전략을 깔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수확을 거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순수하지 않은 의도대로 뭔가 성공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S 정책의 세 번째 영역, 섹스 산업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1982년 1월 5일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했을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단절점이 만들어진 거죠. 그와 더불어 술집, 모텔, 유흥업소, 또 성매매 업소까지 생겨나고 그런 산업들이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게 되지요. 이를 예로 영화의 범람과 함께 논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밤무대가 늘어나고 유흥업소를 통해서 돈이 돌면서 거대한 규모의 조직 폭력배가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서방파의 김태춘이라든지, OB파의 이동재라든지, 양은이파의 조양은이라든지, 이런 그 거물급 조폭, 그리고 조폭 집단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그 장이 이때 열렸고 그들의 전성기가 이 전두환 정권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접대 문화가 활성화된 것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는 음지에서 이 향락 문화가 퍼져가는데 이런 어떤 3S 정책의 섹스 산업 정책이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섹스 산업과 스크린 산업의 연관성은 비단 에로티시즘 영화의 붐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외설 영화에 관한 불법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가 판을 쳤다고 하거든요. 서울에는 '세운상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와 같은 위용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1980년대 세운상가는 한국에서 전자 부품을 구하는 이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용산 전자 상가로 넘어가고 지금은 온라인에서 시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세운상가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크게 자리 잡았던 1980년대에는 세운상가에 입주한 가게들이 힘을 합치면 탱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1980년대 세운상가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빨간 비디오 천국', 이런 표현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외설 영화에 관한 불법 비디오라든지 포르노 비디오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곳이 여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것은 1987년입니다. 그 때문에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이곳은 멈춰 서면 빨간 비디오 구하시냐고 이렇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팔을 붙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후반으로 가면 마약과 과소비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전두환 정권이 향락주의와 소비주의를 은연중에 부추기면서 그리고 그러한 장을 허용하면서 정권을 유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약과 과소비 등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일종의 전두환 정권이 음지에서 펼친 정책의 부메랑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컬러 TV의 보급은 전두환 정권 때 한국인의 삶을 바꾼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때 비디오 기기 또는 전자 게임 이런 부분도 함께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컬러 TV 수상기의 급속한 보급은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컬러 TV 수상기의 수입 물량을 연 30만 대로 규제를 하면서 생산된 TV 수상기 중 많은 수가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 무렵 컬러 TV 방영을 허락하는 정책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박정희의 경우에 컬러 TV 불가론을 펼친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내수시장을 돌보지도 않았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랬던 터라 전두환 정권의 급속한 전환은 매우 조금 뭐랄까요, 준비되지 않은 전환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컬러 TV보급은 훨씬 전부터 가능했지만 한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컬러 TV 보급이 늦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컬러 방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깔려 있는 흑백 수상기가 약 700만 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수상기가 교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물론 컬러 TV 전환이 '정권 홍보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도 있죠. 앞에서 말한 언론 통폐합 발표 바로 다음 날 컬러 방송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당시 한국민들 중에서는 TV를 바보상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TV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죠. 사람을 일방적인 수용자로 만드는 요물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물론 그 지식인들의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어떤 평가도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TV 화면의 컬러화는 국민들을 더 우매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당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컬러 TV의 보급은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영화 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화면이 단지 컬러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시청자가 느끼는 시각적인 쾌감이 그 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게 보면 컬러 TV 보급은 향락주의와 소비주의를 눈감았던 전두환 정권의 경향을 연장해서 보여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전두환 정권의 매스미디어 통제와 그 반대 급부로서 유희책을 동시에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강은 양면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시대에 대한 응전으로서 민중문화운동의 성격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4차시 | 냉전과 반공

이번 차시는 '민중문화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 정책은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체적 민족 사관, '국적 있는 교육' 이런 용어들이 쓰였고 이 용어들이 바로 민족주의를 앞세운 그런 정책 기조를 방증하는 것이죠. 이런 용어뿐만이 아니라 국가, 민족, 국민 이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통문화 발굴 및 개발 정책도 같이 펼쳐졌고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지정되고 호국 유적지 정비 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시 정권이 민족 개념을 심으려 한 이유는 박정희라는 민족 지도자를 구심점 삼아서 단결해 보자라는 내용을, 그런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부 지식인들은 의도된 민족주의를 민중문화운동으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지배 세력과 구분되는 어떤 민중 개념을 앞세워서 아래로부터의 주체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전개한 것이죠. 이는 강력한 지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저항의 성격을 갖는 대중문화의 성격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문화에 대한 예술계의 실천 과정은 운동 성격의 하위 문화가 대중문화로 편입되어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중문화운동은 1980년 한 번 굴절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기존까지 진행된 민중문화운동의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급진적인 저항 운동의 성격으로, 또 사회변혁운동의 성격으로 전환이 되게 된 거죠.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에 의해 주체적으로 주도되는 민중문화운동을 꿈꾸는 사람들도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성격이 바뀐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때는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민중문화운동이 이제는 좀 대중화 노선을 밟게 됩니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민중문화운동이 대중문화의 한 흐름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고도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중문화운동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꺼뜨리려 한 부분은 3S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대목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중 흥미로운 어떤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국풍 81,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수강생 분들 중에서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국풍 81', "아, 나 그때 그 영상 봤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해석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창남은 국풍 81이 제5공화국의 과시적 문화 정책을 잘 보여준다고 말을 합니다. 이 행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지나서 여의도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민들이 죽어가는 풍경들을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두환 정권에게 큰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전두환 정권이 '국풍 81'이라는 엄청나게 거국적인 문화 행사를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1주기의 분위기를 역전시켰다, 저는 거기에 큰 의미를 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에는 전국 194개 대학, 244개 동아리 및 다수의 연예인 총 1만 4천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60만에서 100만 인구가 동원된 대규모 관제 문화 행사였죠.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혀져 가던 민속 놀이를 부활시킨다든지 하는 당시에 민중문화의 어떤 한 측면을 포용하려 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자극적인 대중문화 공연,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향한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막고 이른바 국민 총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행사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민중문화운동은 국풍 81과 같은 관제 문화 정책과 이벤트에 반대하면서 사상적으로 우리의 뿌리를 발견하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중문화운



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진지한 나의 뿌리를 찾는 어떤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때 대학가마다 노래패, 탈춤, 대동놀이 축제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1980년에 창간된 문예지, 문학 잡지죠. 문학 잡지 중에 '실천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창간호를 보면 민중문화운동을 창간이념으로 삼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중시대의 문학적 실천을 위한 부정기 간행물' 이런 슬로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천문학을 보면 진보적 지식인의 글 뿐만 아니라 노동자나 농민들의 글도 함께 실렸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그 민중문화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성격과 그 내용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잡지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1984년에는 '이 해도 좀 기억할 만한 해'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결성된 노래패 중에 '새벽'이라는 노래패가 있습니다. 이 노래패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각 대학에서 활동하던 여러 노래패 출신들이 모여서 민중가요를 보급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죠. 그들이 부른 '또 다시 들을 빼앗겨'는 당시 민중문화운동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문화운동은 마당극 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했고요, 민요 연구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화와 미술계에서도 민중문화운동을 모색하려는 여러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4년 만들어진 '민중문화운동협의회'는 일정한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민중의 주체적 참여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자는 비전을 실천하려 한 여러 협회들이 있었고 그런 협회들 중에서 구심점으로서 민중문화운동협의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중문화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아까 제가 1984년이 중요한 해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학원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재적 학생이 복권되고 총학생회가 대학마다 부활하면서 학원민주화 운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도 1984년이죠. 서서히 학생 운동은 전국적인 연합을 결성하면서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한편으로 보면 대학 문화가 자유롭고, 낭만적인 감수성을 잃고, 정치적이고,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운동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또 그런 성격을 이어받은 민중문화운동의 진원지로 변화해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탈춤, 탈춤패라든지, 또 당시의 노래패 등을 중심으로 한 어떤 운동 중심 대학 문화는 이 엄혹한 사회에 응전하는 젊은 지식인들의 실천적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도 평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있는 움직임이었죠.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불씨가 확고하게 뿌리 내리자 민중문화운동은 방향타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민중문화운동을 대중화하자는 구호가 힘을 얻게 되고요. 1988년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곧 민예총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 단체는 문학, 미술, 민족극, 영화, 음악, 춤, 건축,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 839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문과대에는 벽화가 하나 존재합니다. 제목은 '청년'인데요. 벽화가 그려질 당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결국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이때 '생활미술 놀이공동체'와 '한 그림', '쪽빛' 이런 이름을 가진 동아리가 모여서 벽그림 제작 공동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이 작품이, '청년'이 탄생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 민중문화운동, 그리고 민중문화운동의 진원지로서 그 대학이 대학 문화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대학 문화 운동의 표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두고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유홍준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족미술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중적 확산 작업의 하나이며,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습니까?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해서 민중을 끌어안는 청년의 기상이 이 그림에서 느껴지시나요? 미술까지만 이야기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서 민중가요도 한 곡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곡의 제목은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입니다. 1986년 연세대 학생이던 안치환이 노래 동아리 선배인 안종호의 투옥을 보면서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 선거 유세장에서 안치환 본인에 의해 처음 불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 유명한 그 '새벽'이 비합법 음반이죠. 그때는 '해방의 노래'라는 음반을 내는데 거기에 이 노래가 수록되어서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또 유명한 민중가요도 여기서 많이 불렸죠. 그래서 줄여서 '노찾사'라고 또 많이 불렀는데요. 이 노찾사 2집에 '술아 술



아 푸르른 솔아'가 또 수록이 되어서 더 대중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가요로는 처음으로 공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무삭제 통과하고 대중음악 차트에 진입한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가사를 보시면서 잠깐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문혀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뉘이 주인 되는 참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썩물 들어도 강물 저어 가리라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샛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샛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가사에 대한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1980년대의 대학생들 중에 이 민중문화운동의 그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던 그 청년 대학생 한 명의 그 가슴 내면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대중문화의 여러 현란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어떤 노래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노래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가 가진 진정성을 여러분 스스로 또 한번 해석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 5차시 | 정리하기

오늘 강의는 '지배와 저항 운동으로서 대중문화' 라는 주제로 흘러왔습니다. 애마 부인과 해태 타 이거즈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대의 특징을 요약한 다음에 언론 통폐합과 보도 지침, 3S 정책과 컬러 TV의 보급, 그 의미를 성찰해 봤습니다. 또한 민중문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요약적으로 훑어보면서 시대의 공기를 느껴봤습니다. 저는 1987년이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매우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와 검열, 억압과 규율의 긴 시대가 저물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오늘날 세계인이 즐기는 K-콘텐츠와 K-컬처는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그 잠재력을 축적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작의 자율성과 향유의 주체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독창적이고 퀄리티 있는 문화콘텐츠가 생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세대의 등장과 소비 시장의 개편' 이라는 주제로 1987년 이후 큰 변화를 맞게 되는 대중문화의 영역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강생들조차도 지금까지의 강의는 좀 멀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식을 갖고 살아보지 않은 시대였을 수 있거든요. 물론 나이를 조금 먹은, 나이를 드신 그런 수강생 여러분들은 나의 시대를 지금 다뤄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대부분 공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최근의 문화는 아닌데 지금부터의 강의는, 이 다음 시간부터의 강의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하고 살가운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런 예술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 ■ 학습활동 1: 퀴즈 (2점)

1. 3S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점) (     )
  - ① 스크린
  - ② 스포츠
  - ③ 스토리
  - ④ 섹스
2. '해태 타이거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점) (     )
  - ① 호남 지역을 연고로 창단되었다.
  - ② 단 15명의 선수로 창단식을 진행했다.
  - ③ 1980년대를 통과하면서 해태왕조라고 불릴 만큼의 성적을 냈다.
  - ④ 삼성 라이온즈로 새출발했다.

### ■ 학습활동 2: 성찰일지 (1점)

- ▶ 198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해보겠습니다.

### ■ 학습활동 3: 토론 (2점)

- ▶ 대중문화는 지배의 수단인가, 아니면 저항의 수단인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보세요.

### ■ 학습활동 4: 과제 (1점)

- ▶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서울 올림픽이 한국에서 가지는 의미와 외국에서 바라본 서울 올림픽의 모습을 비교해 감상평을 작성해보세요.



## ■ 학습활동 5: 학습자료

### ① 기록물 자료

- ▶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https://www.518archives.go.kr>

### ② 영상/음원

- ▶ 다음 영상을 통해 3S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S정책([KBS 역사저널 그날]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다-3S 정책, KBS 21022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5tocDcR7oQE>

- ▶ 다음 영상을 통해 해태 타이거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KBS 역사저널 그날] 해태 타이거즈와 목포의 눈물 - KBS 21022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9oifgwIlzA0>

- ▶ TBC 동양방송의 고별방송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TBC 동양방송 17년 역사와 고별방송~<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https://tv.kakao.com/channel/2879994/cliplink/375530037>

- ▶ 땡전뉴스가 무엇인지 다음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땡전뉴스(옛날방송 전두환 땡전뉴스 모음 1985 1988):

<https://www.youtube.com/watch?v=-hMMMvQTCA8>

- ▶ 국풍81과 관련된 뉴스를 통해 해당 축제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풍81(영상: 대한뉴스 제 1335호-국풍 81):

<https://www.youtube.com/watch?v=j1-xdHlEMMs>

- ▶ 안치환이 부른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음악):

<https://www.youtube.com/watch?v=LNDtc3lyd6s>



.....

<퀴즈 정답>

1. ③, 2. ④



## Week 8. Dominance, Resistance and Popular Culture as a Movement

### The First Session | Introduction

This lecture is to figure out the origin of the Korean wave and K-contents through Korean pop culture. Korean pop culture history through keywords'. Today, I will give a lecture for week 5 under the title of 'Dominance, Resistance and Popular Culture as a Movement'. Let's start. During this lecture we'll learn about the 5th Republic period. Let's look at the pop culture during the new military regimen by Chun Doo-hwan, Who came to power after a military coup on December 12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f we look at this period only as an improvable and quantifiable index, There appeared to be many positive factor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price stability and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standards. However, some say that Chun Doo-hwan opened a new era of authoritarianism by strongly suppressing the democratic movement in Gwangju on May 18.

*In the Spring of Bitgoeul, 1980*  
*I was a student at Chosun University in the 80s.*  
*At that time, I was teaching as a science teacher in high school.*  
*My brothers lived in Gwangju, and I lived in Haenam with my parents.*  
*Nevertheless, I was able to recognize 5.18.*  
*#In 1980, in the spring of Bitgoeul,*  
*# Jeong Do-yong / Guide to May Road*  
*I've been commuting here (Gwangju) for about an hour. at a school in*  
*Hampyeong*  
*I can't come back after going to work I blocked all the buses.*  
*# Kim Hyang-soon / Commentator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rchives*  
*A bus from Gwangju came into the remote rural area where I live*  
*It's parked in one place without going for a long time.*  
*There were only buses running from Haenam-eup to Naju, so buses*  
*couldn't enter Gwangju*  
*(My mom) walked from Naju to Gwangju, and my sister and brother*  
*who lived in Yanglim-dong went back to the mountain path*  
*I remember walking back to Naju as if I were evacuating and coming*  
*to Haenam during the uprising.*  
*# Kim Yong-chul / Culture and Tourism Commentator*  
*I'm sure you all know at the time, but all college students*  
*came out in front of Jeonnam Provincial Government and shouted out*



*Minju (democracy)*

*they shouted for martial law to be lifted, and they threw stones at the martial law army.*

*They participated in demonstrations. On the last May 21st, I saw them being shot from the side.*

*The situation was urgent and there were many miserable situations.*

*# 5.18 Commentators*

*# Reasons for Becoming a 5.18 Commentator*

*Anyone living in Gwangju would feel it, but I think I have some debt for 5.18.*

*That sense of debt, that sense of sorry, that's what got me started.*

*There was a lot of sense of debt and sorry for the deceased and the people involved.*

*I thought that there would be something helpful for them*

*I chose to be a commentator for them.*

*# Why the 5.18 Democratic Movement Should Be Remembere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5.18 pro-democracy movement is that I think of the people a lot.*

*The people's dynamic appearance in a historical scene has become a great driving force in the national society.*

*The 5.18 pro-democracy movement is not just a history of the past.*

*I think there are parts that function as a driving force to lead the future society, and there should be parts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Because our society can reduce trial and error throug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 country that's labeled a democratic republic*

*It is an incident in which people were brutally killed by the military, which they believed would protect the lives of the people.*

*Through that, the lesson that this should not be repeated in the future generation,*

*Citizens have come to realize what they should do and what they should do as sovereigns.*

*# 5.18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Democratic Movement*

*These days, many people have recognized the movie "Taxi Driver" and many people visit.*

*I'm glad.*

*The younger generation understands that it is a democratic movement rather than the word riot or situation.*

*It's kind of the result of education.*

*I think it's thanks to the fact that the misunderstanding of people in other regions has been resolved and the number of positive views has*



*increased.*

*# 5.18 The Future of the Democratic Movement*

*I think we need to find out the truth.*

*If the truth is revealed, the person in charge will be punished.*

*Now only a few people in Sin-gun-bu (the new military), including Chun Doo-hwan, have been punished, and I think it will be an accurate legal basis.*

*I think we need to restore our honor.*

*People in Gwangju still recognize that they are mobs and red, but the truth is that they are not.*

*I think the people who were scarier were Sin-gun-bu (the new military).*

*They still live shamelessly, so they're distorting a lot.*

*The 5.18 pro-democracy movement is not just a setback in the painful history of an era.*

*This 5.18 pro-democracy movement has become a stepping stone, and our history should become a new starting point for development in our modern history.*

*Our 5.18 commentators are working hard with passion to tell the truth of Gwangju.*

*We ask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from students and visitors to visit.*

As soon as he took office as president, he started with closing down of the press. It was a decision he chose to continue to control the people and maintain power more efficiently like Park Chung-hee. Even though Chun Doo-hwan's idea of dealing with pop culture was similar to Park Chung-hee's, there were different aspects. Thus pop culture in this period can be described as a place where strategic practices of groups with different interests collide and intersect. The goal of today's lesson is to look at the dynamics of popular culture As a domination and resistance movement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The main keywords in today's class are Madame Ae-ma and The Haitai Tigers, 'Media Consolidation and Reporting Guidelines', '3S Policy and Color TV' and 'Popular Culture Movement'. I prepared today's lecture by remembering old memories. I hope that you can reflect on another character of popular culture through this lesson.

## The Second Session | Madame Aema and The Haitai Tigers

The title of this lesson is "Madame Ae-ma and The Haitai Tigers." "How did Madame Ae-ma come to us?" I wanted to ask you this question. If you have taken the last class, I think you'll be able to understand the inside story of decadence in the pop culture and hedonism unde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Decadence and pleasure can be divided by subjective and arbitrary standards. But in the time of Chun Doo-hwan, this atmosphere changed a lot, And decadence or pleasure were concepts that didn't fit with this military regime, But we can say that it was allowed to some extent. Usually, after an oppressive regime leaves, The next regime is bound to use conciliatory measures with people. Chun Doo-hwan kept staying in power without justification after forcibly suppressing the May 18 pro-democracy movement, So rather than consistently pushing ahead with the method of control and oppression, he also chose to lift some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he tried to effectively use strategies to distract people from politics. Of course, since Chun Doo-hwan did not explicitly declare this strategy, It can be seen as just an interpretation. There is still a counter argument about whether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ctually used a policy to democratize the people, To divert people's attention from stimulating pop culture. I would argue that Chun Doo-hwan administration's policies on popular culture were based on such a foundation in a broad framework. I think the so-called 3S policy was implemented in the dark. 3S refers to screen, sports, sex. The movie "The Ae-ma Woman" can be said to have the symbolism of representing Chun Doo-hwan's screen policy. We will discuss the 3S policy in more detail afterwards. I'm only going to talk about Madame Ae-ma here. This movie was shown for the first time in February 1982. It was also the first product of Chun Doo-hwan's appeasement policy on the screen. Soon after its release, Madame Ae-ma became the number one domestic movie and was a box office hit. It was so popular that 13 movies of the same name were produced by 1996. Of course, for those in their 40s, 50s, 60s, Madame Ae-ma is still referred as a synonym for erotic movies. With titles such as 'Paris Emma', or 'Gypsy Emma', Other Madame Ae-ma's series were created, by a combination of words that don't fit together. It can be said that there weren't many shock waves when mass-produce of such works appeared, as this one. Many of Madame Ae-ma's sequels could not avoid sensationalism. Of course, not to mention the poor quality movies. There are a lot of works that did not deviate from the level of low-grade erotic movies. However,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did not explicitly encourage erotic films. Nevertheless, I don't think it's unreasonable to say that Chun Doo-hwan's conciliatory measures on the film industry helped create an erotic movie boom. This phenomenon can be seen as a subtle synergy with the policy stance of sitting on the sidelines in the sex industry, That is, the reaction of the sex industry. It can be more surprising for foreign students. It was not until 1982 that the curfew was lifted in Korea. So it can be said that from this period on, the environment was created to help flourish



the nightlife. In fact, the entertainment industry expanded significantly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nd it is hard to say that the expansion of the erotic movie boom and the entertainment industry existed separately. Here's the rough sketch of Madame Ae-ma. The main character's name is Ae-ma. She was a married woman, with a husband. Her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wasn't smooth. Her businessman husband didn't take care of her. Their relationship wasn't good either. Eventually, the husband was sentenced to eight years in prison for an accident. At that time, her child gets taken from her by her in-laws and she gets lonelier. She suffers because of the patriarchal environment, Nevertheless she can't leave her husband and visits him continuously. People around her suggest divorce, but she can't make that decision. An interesting point is that Ae-ma is a character who seriously considers and practices her sexual desire. This was never seen in existing Korean movies. She suffers from loneliness and sexual desire in the absence of her husband, And she continues to agonize between sexual deviance and fidelity. Self-stimulation relieves her lust, but that alone does not lead to complete satisfaction. After that, she slept with her ex-lover. But she suffers from his tyrannical attitude. Then she goes to bed with a craftsman. At the same time, Ae-ma seriously thinks about divorcing her husband, When the craftsman says, "Let's leave for France together", Ae-ma is about to respond, But that was the day her husband was released from prison. And the movie ends when she goes to meet her husband. Prior to Madame Ae-ma, Films about women's sex were dominated by hostesses who endured sacrifices as the weak in patriarchal society Or so-called "women's suffering narratives" in which women were severely alienated by various circumstances. However, when Madame Ae-ma came into the world, the screen began to say, "Women are also like men with sexual desires", And the fact that this woman is not an accessory to a family, but a "subject who can practice her desires" led to active public debate. Of course, like the movie "The Lady of Liberty," which was mentioned when dealing with pop culture in the 1950s, Doesn't Ae-ma go back to her home? So, there is an aspect that ends by compromising with it Without getting away from any traditional family's values perspective. And yet, they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There are people who easily judge Madame Ae-ma as a "third-rate erotic movie." But one can also say, "This movie has a part that can't be denigrated like that." Regarding other things, Madame Ae-ma's main character played by Ahn So-young, quickly rose to stardom with this movie. However, the image shown in this movie was so strong that she was not be able to star in various movies afterwards.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it created an environment for new actresses to appear in the 1980s. Lee Mi-sook, Won Mi-kyung and Lee Bo-hee became the new faces of movies in the 1980s, were able to show off their charms because of the imaginative and fictional performances created by Ahn So-young. Maybe it wouldn't have been possible without her. I believe, Madame Ae-ma's appearance and the subsequent movie boom are important scenes to understand the pop culture of the Chun Doo-hwan era.

Now, let's look at the meaning of the Haitai Tigers dynasty. As part of the 3S policy, Chun Doo-hwan actively encouraged professional sports. In the case of professional



baseball, launched in 1982, it became very popular from the beginning by establishing the home team system. Until then, high school baseball was very popular in Korea. When I was very young, I had a TV at my house, And I remember the neighbors, and then the students who were boarding in the neighborhood, came to watch the high school baseball finals. I have those memories of watching it together. At the time, high school baseball was also popular because it was a competition between prestigious high schools in each region, So it was popular because of such a competition system based on the connection to regions. Like this, professional baseball was born by the popularity structure high school baseball had created. It's still the same now, But the ties between people and regions at that time were very strong. Because of that, the professional baseball teams representing each region had changed. In order to represent the identity of the region, or the pride of the region, to the local people. The Haitai Tigers were naturally born as a club representative citizens from Honam or Gwangju. So using Mudeung Stadium in Gwangju as its home stadium, Haitai Tigers were loved by locals for 20 years. Since then, due to the parent company having financial trouble, Kia Motors has absorbed the team and made a fresh start under the name of the Kia Tigers. There are two main reasons why I want to mention the Haitai Tigers. First, it is an appropriate case for understanding the content and effectiveness of sports policies among 3S policies. Second, the ups and downs of political history at that time are buried in the history of the Haitai Tigers. In fact, Haitai was not a club with enough financial power to establish professional baseball. Compared to companies like Samsung in Daegu,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ize of the company. Nevertheless, if the league were to have launched without creating a professional baseball team representing Honam, The regime would have agreed to set up a professional team for Haitai Because there could be another theory of Honam alienation rising again. Now that I think about it, it's really ridiculous, But the Haitai Tigers didn't have the capacity to form a proper team at the time. So when the professional baseball team was first founded, the number of players was 15. Considering the minimum number of players needed to play a professional baseball game, The size of the 15-member team was ridiculous at this point. So in the first year of its foundation, they struggled due to a lack of players. There were only five pitchers when they were founded. It was almost impossible to have a long season with these five. Furthermore, there was a mishap at the beginning of the season in which the manager left the team due to a feud between the manager and the coach. So they played the season under the acting coach system. There was 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named Kim Sung-han who would make a record in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istory. This player is famous as a batter, and he also served as a starter and batter in the first year of professional baseball. The Haitai 'Tigers' true history begins in the second year of professional baseball. In fact, even in the second year, they failed to reinforce the players, So it was difficult to expect good results. The good thing about the misfortune was that the foundation of the team was paved with the appointment of manager Kim Eung-yong, Who had studied abroad in the U.S. As a result, the second year performance was a miraculous victory.



The size of the team was small, there was a lack of investment and the treatment of the players was terrible, Yet they had built the pride of Honam people who have been alienated sinc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many factory zones were established in Busan, Ulsan, Daegu, Gumi, Pohang and other areas. Jobs were created, and many new growth engines of Korea were secured through them. Not only were a lot of jobs created, Even in areas such as roads being paved, institutional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became much better around Daegu, Gyeongbuk, Busan and Ulsan. Honam was being relatively alienated, Thus there was a politician named Kim Dae Jung, who represented Honam, and he said he could relieve the suppressed hearts of the Honam people. However, he kept failing. Like this, during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easy for Honam people to have a sense of "We a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we are being alienated," And I think that the Haitai Tigers' victory could hav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uilding the pride of their local people or relieving their feelings. Later, from 1986, the Haitai Tigers became such an invincible team that they were called the Haitai Dynasty. From 1986 to 1989, they won the Korean Series four years in a row. After one year in 1990, they continued to win the Korean Series in 91, 93, 96 and 97. Then, in the 2000s, financial difficulties became more severe, and as the parent company withdrew from operation, and the Haitai Tigers disappeared into the back of history. The Haitai Tigers were a club full of celebrities from the 1980s to the 1990s And were superior in both team and individual performance. They were celebrities. Perhaps they could have been treated much better if they went to another team, But I believe they had pride on being in Haitai. This contributed to the representativeness of Haitai Tigers based in Honam and Gwangju, And to meet the aspirations of the citizens who supported the Haitai Tigers. I think they were loyal. So far, we've focused on the glory of the Haitai Tigers. In fact, there are many secrets surrounding the Haitai Tigers that are not well mentioned. There are many things I would like to explain, but I want to tell you about only two of them. In fact, Honam and Gwangju had been directly alienated and discriminated against sinc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Furthermore, in 1980, citizens were slaughtered by the Chun Doo-hwan regime. The reason why Honam people gave enthusiastic support to a politician from Honam called Kim Dae Jung for a long time May be because of the depth of discrimination and sorrow they experienced. Kim Dae Jung had an experience of los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unfairly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Since then, he was never elected president by one end. Many times they actually cross the threshold of death by the military regime. So the Honam people who dreamed through Kim Dae Jung when it came to politics, Resolved their sadness, anger and despair through the Haitai Tigers, Which played a role in relieving the sadness of any Honam people at Mudeung Stadium. Which is what I mentioned earlier. Now, although it's a very subjective interpretation, there's definitely a compelling part of this interpretation. I'd like to tell you a personal story. I was born in Gwangju and grew up seeing my father who liked Haitai Tigers so much, and remember the song Gwangju citizens sang frequently in Haitai Tigers games. I mentioned this song at the beginning



of History of Pop Culture lectures. The song "Tears of Mokpo" sung by Lee Nan-young was sung by citizens at the Mudeung Stadium as a cheer for the Haitai Tigers. They longed for victory by singing Mokpo's tears together. But if you think about it, Mokpo's tears don't match at all as a cheer for baseball games. How can I explain why sorrowful trot of Shimpa was sung during a game? I think the song contains the Gwangju citizens' affection and support for politician Kim Dae Jung. And their desire to overcome a painful history. Kim Dae Jung had a difficult time and a sad childhood. He entered elementary school in Mokpo and graduated from Mokpo High School. So, I think this song, Mokpo's Tear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capture the identity of Gwangju citizens, Gwangju citizens' dreams and all of these things. It was not a popular song or an obvious cheer for Honam people. The second story is that, The Haitai Tigers had never played in Gwangju on May 18 until the opening of the new 2000s, from 1982 to 1999. Why didn't we have a home game? That day was one of much sadness, pain and anger which entered the hearts of the people of Gwangju and Honam. On May 18, there was a pro-democracy movement in Gwangju. Many citizens were killed by the new military at that time. So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worried Gwangju citizens might take collective action at baseball stadiums on May 18. So to prevent unsavory situations, The Haitai Tigers' home games were not held in Gwangju for a long time. In 2017, the report by the Kyunghyang Shinmun revealed the inside story more accurately. A document was discovered that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Ordered the adjustment of the professional baseball schedule to be held in Gwangju on May 18. Let me tell you one more interesting fact. The Haitai Tigers' record before their first home game in Gwangju on May 18th, 2000 Was 9 wins and 2 losses. So at least on this day, the players also played with that determination, Thinking, "I should never lose." The book 'Haitai Tigers and Kim Dae Jung,' which deals with memories of the Haitai Tigers, has the following verses: Haitai was the strongest, but was the hero of the weakest, They were the strongest, but fought in the way of the weakest, And they were the winners, but they were loved by the losers. And there is a phrase that explains what Haitai Tigers meant to Gwangju citizens in the 1980s. "Even when only a few people sat down with a long fear of death I had to hold my breath while feeling the snake-like gaze of an officer And when the sun came up, on the blood-stained street of my family and friends I had to earn once again a seat in a servile and tiring life For the citizens of Gwangju, The Mudeung Stadium was the only place where thousands of people could sit and shout For them, the Haitai Tigers were the only way out That allowed them to feel the joy of victory and envy by breaking the bondage of painful defeat and discrimination" I've told you about Madame Ae-ma and the Haitai Tigers. Through these stories, you might have been able to understand scenes about pop culture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nd I think you could understand indirectly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nature of the Chun Doo-hwan regime. Next time, we will look more specifically at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and the reality of popular culture.

## The Third Session | Media Consolidation and Reporting Guidelines

The title of this lesson is 'Media Consolidation and Reporting Guidelines' and '3S Policy and Color TV'. And the subtitle for 'Media Consolidation and Reporting Guidelines' is 'The Age of Arrogance'. A case that shows the Chun Doo-hwan regime's control over mass media is the media consolidation and abolition implemented by the National Security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in November 1980. Chun Doo-hwan's justification was that the media companies should improve their structure. There were many news agencies, broadcasters and newspapers, So, shouldn't a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ve been introduced? But this was an extreme control policy. There must have been a hidden agenda. He tried to dismiss journalists who did not comply with the Chun Doo-hwan regime And control the reports to suit the taste of the regime. At this time, a ban on newspape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was created. Some amazing things have unfolded because the development of media consolidation. First, on the evening of November 12, 1980. The commander in security's interview and speech brought out all the media owners. At that time, 17 managers and 13 media companies in Seoul agreed to write a memorandum at the headquarters of security. Local security forces forced the memorandum on local media outlets. In the process, unethical abuse also was committed. A total of 45 media owners received the memorandums. However, they stated they would comply to the conditions on the press and decided to give up their companies. If you think about it it's unthinkable it happened, right? And there's also a clause in the memorandum that says, "Don't mention any of this." The media consolidation policy takes effect two days after this happens. Here's what happened as a result of media consolidation. The number of central daily news papers had decreased from seven to six. There were economic newspapers. These went from four to two. In the case of local newspap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there should be one newspaper per province, There were originally 14 newspapers, but was reduced to 10. The two carriers, Joint Communications and Tong Yang Communications, were absorbed by Yonhap and unified. With the abolition of the local journalists of the central press and the central reporters of the local media, All media companies received news from other regions through the combined communication network. Through other networks. The media was adjusted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the Chun Doo-hwan regime and the efficiency of governance. Meanwhile, TBC TV, which was owned by Samsung, was forcibly integrated into KBS 2 TV, And MBC avoided consolidation, but changed to a structure in which 65% of its shares were owned by KBS. Regarding the radio, Samsung's TBC and Dong-A Ilbo's DBS were absorbed by KBS. This restructuring led to the sudden layoff of numerou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broadcasting stations and newspapers, Leading to tremendous confusion in the media and broadcasting circles. To avoid misunderstanding, I'm not saying that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was



unconditionally bad. But in this case,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ctually nationalized broadcasting and laid the foundation for controlling newspaper reports. To control people, they tried to take complete control of the mass media. There was a famous incident at that time. A title under TBC Oriental Broadcasting's prepared a farewell broadcast. It was a live show called "Goodbye, TBC Family." In the last episode star singer Eunha suddenly started to cry. It was a natural response. However, they were suspended for three months just because they showed tears. I told you earlier that it was a live broadcast, Eunha wasn't the only celebrity who cried or made a flustered expression during this broadcast. So if you watch it again, you can feel how absurd and sudden this situation was through the faces of the celebrities at that time. Another proof that President Chun Doo-hwan was a dictator in the authoritarian era is due to the existence of press guidelines and their content. It's hard to imagine giving the press a press guideline And expect them to write an article accordingly in a modern liberal country. Chun Doo-hwan, who coerced the consolidation of the media, enacted the Basic Press Act in December And established a public relations coordination offic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Affairs for daily and efficient control of the media. The Public Relations Coordination Office was responsible for providing guidelines for each media outlet reporting. When media was oppressed, all stat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Department, the Armed Forces Security Command and the Police Intelligence Agency were mobilized. It was later known that behind the Public Relations Coordination Office Was the Office of Senior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under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So the president personally controlled all of these media outlets, The weight and the nuance of the content.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how detailed the control over the content of the article was. It was a basic simple task to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article's content and format told the truth. And the content, personality and literary style of the article were carefully regulated by the regime. The government controlled and interfered with the content On which page of the newspaper to put this content on Or what specific expression to put in or out of the title. Right now, the 8 o'clock news feel like the main news, But not too long ago, didn't the 9 o'clock news feel like the main news? At that time, the most influential news was the 9 o'clock news. In this 9 o'clock news, the cue sheet was pre-censored, The title and content of the cue sheet at that time was censored The size and format of the subtitles, the arrangement between the subtitles and the pictures, all of these parts were censored. Of course, they reviewed the script beforehand.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journalists were taken to state agencies And beaten and tortured for violating press guidelines. And on the contrary, they would bribe journalists to appease them Or give some bribes to tame them. All of this has been confirmed. According to Althusser, in order for the regime to strengthen its control, It has to make good use of repressive state devices, such as administration and military, police prisons. But more than that, religion, education, culture, the media, These are called ideological state devices or ideological state organiza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effectively control these organizations. There are former works through explicit violence and coercion, And latter



works, where the ideological state apparatus, works through ideology. Althusser expresses that this ideology calls the subject. If so, Chun Doo-hwan's media consolidation and press guidelines can be diagnosed as disciplining the way people call out human figures suitable for the 5th Republic and the way people enter the imaginary relationship. I remember when I was a kid, the adults in the neighborhood would said, "Ddeng-Chun news, ddeng-Chun news." If you recall, the 9 p.m. news at that time showed the second hand spinning in a video like a digital clock. When the clock struck nine, it made a "ding" sound. Then the anchor would start with, "(President) Chun Doo Hwan today." That's why it was called like this. The sound at the beginning of the news and the first word of the anchor, Chun Doo-hwan, were combined to make the word 'Ddeng-chun'. The fact that these words were widely circulated among ordinary citizens is how much they caricatured the news at that time. And the figurative speech of ddeng-chun (a penny) when speaking about the value of the news. So you can see how much they belittled it. There are still a lot of these news materials left on YouTube. What do you think it would be like to go back to this suffocating time? If I were to go back to that time at my age, I would probably live without watching the news.

This next lesson is titled "3S Policy and Color TV."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integration and mass media in the era of news guidelines is easier to grasp by understanding expression '3S policy'. As I mentioned briefly while explaining Madame Ae-ma earlier, The 3S policy was indirectly and secretly exercised. It seems that Chun Doo-hwan strategically differentiated the areas to dominate and control and those to loosen restrictions. I believe the 3S area was a policy that provided a window to relieve the stress of people suffering from oppression, control and discipline. Let's first look at the area of the screen, which is one of the 3S policies. Chun Doo-hwan lifted the curfew and implemented measures to liberaliz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iforms and hair. Soon he would open a late night theater. This is March of 1982. This kind of opens up for the expansion of entertainment. It opened up that space. The first movie in the late-night theater is Madame Ae-ma, the one I explained earlier. The title and content of the film are known to have been inspired by the 1974 French erotic film Madame Emmanuelle. As stated before, Madame Ae-ma's success led to a more stimulating flow of erotic films afterwards, with the expression of female desire at the forefront. Regarding erotic films at the time, Yeon-ho Lee explains in two ways, 'The derailment of urban type wives of leisure and the derailment of local type country girls were a big trend'. I agree with him. However, if it wer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for all these movies to be released. As I said, they tried to avoid decadence and pleasure at all times, so this could be described as solemnism. In popular culture, there is a side that pursues this solemnis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stimulates the expression of sincerity or some kind of imagination related to it. These type of scenes were subject to censorship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hich made it generally impossible to see viewers or audiences. It would've just been cut off. But Chun Doo-hwan eased that censorship. So I think this alleviation became important. This relaxation indirectly refers to the existence



of the 3S policy And is seen as the basis for the 3S policy to continue. Let me list the titles of the erotic movies. These are movies from the early 1980s. 'The Door to the Flesh (Yugche-ui mun)', 'Parrot Cries with Its Body (Aengmusae mom-eulo ul-eosssda)', 'Women Don't Fear the Night (Yeojaga bameum duryeowoharya)' Between the Knees (Muleupgwa muleupsa-i)', 'The Stolen Apple Tastes Good (Humchin sagwaga mas-i issda)', 'A Night of Burning Bone and Skin (Ppyeo-wa sal-i taneun bam)', 'An Ark Shell Lands on Earth (Pijogae mut-e oleuda)' None of these films can be sold as third-rate low quality film. Some of the films featured representative directors and representative actors of the time. Of course, there are movies that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work quality. In the case of 'Parrot Cries with Its Body' The director Jung Jin-woo is still recognized as an elder director in Korea. 1960s actresses troika Yoon Chung-hee, Moonhee, and Nam Chung-im that passed by as fast as a comet. So, a new raising actress troika emerged in the 1970s Among these, actress Chung Yun-hui's work was really popular. Along with Chung Yun-hui who was popular at the time, the new actresses troika. As I mentioned before, Actress such as Yoo Ji-in and Jang Mi-hee also appeared in erotic films at the time. In the case of 'Parrot Cries with Its Body',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Lee Hyun-ho, It can be said to be a movie about the derailment of native country girls. And with this film, a I mentioned before Chung Yoon-hee won the Best Actress award at the Grand Bell Awards. Now, I have told you about the trends that were created in the movie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nd I believe you understood what was presented. The 1970s had a big change. Movie titles, contents and expressions that were hard to imagine became common. The situation in which a high level of movies are boldly made and naturally accepted is a considerable cultural change. Now, let's look at Chun Doo-hwan's policies on sports. Sport was the most explicit nurturing area of the 3S policy area. In the spring of 1980, Chun Doo-hwan trampled on the desire for democracy and slaughtered Gwangju citizens. I think Chun Doo-hwan thought that he needed a big event to come to help him overcome the political crisis he was experiencing. Is that why the 1986 Asian Games and 1988 Summer Olympics were held in Seoul? This is how we got to hold the Summer Olympics.

*<Korean News Replay (88.08.10)>  
# Opening Ceremony of the 24th Seoul Olympics, 1988 Korean News  
Following the opening speech of Park Se-jik, chairman of the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there was a welcoming speech by Samaranch,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Seoul is the world, the world is Seoul!  
The meaning of harmony created by the audience was raised by Korean medalists from past Olympics with Olympic flags while engraved with harmonies.  
2,400 pigeons, symbolizing the 24th competition, flew up to create a peace festival atmosphere.*



*Lim Chun-ae, who received the torch from athlete Sohn Kee-Chung, went around the field*

*When the torch was reached and handed over to three torchbearers, the lower part of the torch was soon turned into a lift and climbed to the front of the torch.*

*Three ordinary people, Jung Sun-man,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Kim Won-tak, a marathon runner, and Son Mi-jung, a student at Seoul Arts High School, carried the sun's fire to the torch.*

*More than a thousand taekwondo teams showed a feat of defeating Songpan by breaking down the walls that blocked human society.*

*Silence flowed over the collapsed wall, and then a child appeared, rolling a hoop and picking the ground, setting the stage for sprouts to pour out.*

*In the lawn, where 1,200 children formed the playground, they led the audience to a world of innocence by jumping rope, spinning pinwheels, and kicking jegichagi.*

*The whole family of the global community finally stood in one yard singing "Hand in Hand."*

*Five billion people who do not hate each other, neither deceive each other, nor quarrel with each other*

*This Seoul Olympics is a festival that puts its best efforts into expressing the ideals of mankind's dream Olympic under the theme of "Over the Wall."*

*This competition, which combines the unity of stars, will be a meaningful opportunity to achieve peace and harmony among mankind.*

*The men's 100m final will be held on the track.*

*24th Seoul Olympic Games, World Championships Most Interested Among 237 Gold Medals*

*In the 100-meter sprint final, Ben Johnson of Canada finished first with a new world record of 9.79 seconds*

*Carl Lewis of the United States was honored with the honor of winning the gold medal because he was disqualified from taking drugs.*

*The Seoul Olympic Games set many new world records and Olympic records*

*While the initially anticipated star players were sluggish, unknown rookies performed well.*

*In addition,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outperformed the U.S. in the medal race, showing their appearance as sports powerhouses.*

*In Korea, Kim Young-nam came from behind to beat Soviet athlete Tourlykhanov in the final in the 74kg wrestling Greco-Roman class*

*He was impressed with the first gold medal among Korean athletes.*

*Kim Sung-moon of the 68kg Greco-Roman class won the silver medal.*



*Greco-Roman 52kg Lee Jae-seok, 62kg An Dae-hyun, and 82kg Kim Sang-kyu won bronze medals, respectively.*

*On Chuseok night, Kim Jae-yup proudly won the gold medal in the 62kg judo final, beating Asano of the United States.*

*The next night in the 65kg division, Lee Kyung-keun also beat Poland's Janusz Pawlowski to add a gold medal.*

*Chun Byung-kwan, dubbed the "small giant," lifted 260 kilograms in total in the 52kg weightlifting class, giving Korea the honor of its first silver medal in 32 years.*

*Lee Hyung-kun, 82.5kg weightlifting, also won the bronze medal.*

*Cha Young-chul, the leading figure in shooting in Korea, won the silver medal with a new Korean record of 702.8 points in the men's small caliber rifle.*

*Park Jong-hoon, who scored 100,000 points in the second round of the individual gymnastics vault, became the first Korean athlete to win a bronze medal in Olympic history*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Korean gymnastics.*

Support in the 1986 World Cup in Mexico is also known to have helped. What was the need for such huge sporting events? Through this, Chun Doo-hwan appeared to have tried to promote Korea's development, And to plant internal national pride for developing as a country. According to a national poll at the time, the approval rating for the Olympic bid was close to 90%. But I think there may be disagreements About whether South Korea's national power at the time was strong enough to handle such a level of a sports event. So, I personally believe we were going to have a bigger sports event Compared to what Korea's national strength at the time could handle. That is why there was a pushing policy of consciousness claiming Chun Doo Hwan could do it. For example, a special mission was issued to eliminate poor dwellings in Seoul. There were many visitors from abroad, but they didn't want to show the scenes of poor people living in Seoul. So all of a sudden, the redevelopment of shanty towns was pushed forward, And the residents were driven out without guarantee. Professional baseball, professional wrestling and professional soccer were launched one after another By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Professional baseball was first launched in 1982. Professional football was launched in 1983. It is hard to say that it is a complete professionalization, but the basketball festival was launched in 1983. The Korean Volleyball Super League was born in 1984, during the Chun Doo-hwan regime. As I said when I explained Haitai Tigers earlier, The popularity of professional baseball, which was created based on a regional system, had been significant since the beginning. Chun Doo-hwan also threw the first pitch at the opening ceremony of professional baseball between MBC's youth and the Samsung Lions Which opened on March 27, 1982 at Seoul Stadium. I cannot accurately judge what gains and losses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had Regarding sports' professionalization. I think maybe there were cases where something

that Chun Doo-hwan didn't want happened. For example, as Haitai Tigers' popularity grew nationwide, the politician Kim Dae Jung, Who was also an eyesore to the new military, might have been able to have him exposed. Anyway, Chun Doo-hwan's sports policy had a positive side in pure terms. It is definitely an aspect that contributed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elite sports. And it is possible 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sports equipment industry to grow in size. In addition, the public had become more interested in leisure activities There's also this side to it. So,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s sports policy was not based on an innocent strategy, But it seems that it has reaped its own harvest, And on the other hand, it has succeeded in some way as it was planned with an innocent intention.

Finally, I'll talk about the third area of 3S policy. The sex industry. As I have already mentioned, the abolition of the curfew on January 5, 1982. This caused a major change in people's daily lives. There was a certain break point that all people could feel. Along with bars, motels, entertainment, prostitution All those industries were rapidly growing. I told you earlier that we can discuss this with the overflow of erotic movies. As the night stage increased and money had been circulated through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The opportunity for large-scale gangsters to work started. There are people who actually see it this way. Kim Tae-chon of the Western faction, Lee Dong-jae of the OB faction, Cho Yang of the Yang Eun faction And other big-name Korean gangsters were able to operate at this time. Their heyday was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The revitalization of the entertainment hospitality culture can also be mentioned. This culture of pleasure spread in the shadows,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3S policy of sex industry had contributed to it. The connection between the sex and screen industry is not just explained by the boom in erotic movies. At that time, illegal videos and pornographic videos and obscene movies were rampant. There is a place called Sewoon Shopping Center in Seoul. It doesn't have the same power as it did in the past. In the 1980s, Sewoon Shopping Center was a paradise for people who bought electronic components in Korea. Later it moved to Yongsan Electronic Shopping Center. The market is much larger online now. In the 1980s, when Sewoon Shopping Center was largely located in people's perception, people would spread words such as "If the stores that moved into Sewoon Shopping Center join forces, they can create tanks, they can create submarines." I think the representative image of Sewoon Shopping Center in the 1980s can be expressed as 'Red Video Heaven'. This was the place where illegal videos and pornographic videos about obscene films were widely distributed. It was in 1987 that proper copyright law was implemented in Korea. For that reason, until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This was a place where people would ask if you were looking for a red video. In the second half of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drugs and excessive consumption emerged as social problems. Looking at these various situations, I think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secretly encouraged hedonism and consumerism By allowing such a venue they maintained its power. I mentioned that drugs and overconsumption had become a big problem. However the problem may be a kind of boomerang of policies implemented in the dark by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The spread of color TV is another scene that changed the lives of Koreans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Video devices and electronic games were also popular. It is argued that the rapid spread of color TV receivers was due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U.S. had been regulating the import volume of Korean-made color TV sets to 300,000 units a year. Thus many of the produced TV sets had no choice but to remain in stock. But by that time, a policy shift that allowed color TV was now taking place. In the case of Park Chung-hee, he was in favor of the prohibition of color TV. So the industry didn't take care of the domestic market. They didn't even think about it. So the rapid transition of Chun Doo-hwan's regime might have been a very little bit of an unprepared transition. Technically, color TV distribution had been possible for a long time, but Korea suffered the delayed distribution of color TV due to political reasons. There was a lot of confusion when the color broadcast was carried out in full. There were about 7 million black and white receivers all over the country. Don't we need to change the receiver? We would have needed time doing that. Of course, some people say that the transition to color TV had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regime. Color broadcast started the da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merger and abolition of the media. So people might think that there's some kind of connection. Also, some Koreans at the time called TV a fool box. Of course,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who call the TV that. It's an object that makes a person a one-sided acceptor. There are people who still think like this about it. I think there's of course an assessment involved based on the elitism of the knowledge. There were also concerns at the time that the colorization of TV screens would make people more foolish. However, the spread of color TV had been very rapid. And the film industry was hit hard. The screen had only changed to color. But the visual pleasure that viewers felt was completely different in quality from before. In that way, it can be thought the spread of color TV prolonged the tendency of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Which overlooked hedonism and consumerism. Have you followed well until now? We looked at both the mass media control of the Chun Doo-hwan regime and the conciliatory measures as the opposite benefit. I don't know if I can call this a two-way street. In the next episode, we will look at the nature of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and its contents as a response to the times.

## The Fourth Session | People's Culture Movement

This lesson is titled "People's Culture Movement." In the 1970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ies often put nationalism first. The terms "independent national view" and "national education" were used. These terms testified to the policy stance of nationalism. Not only these terms, but there were many expressions such as country, nation and people. Therefore, various traditional culture discovery and development policies were also implemen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ere designated, And projects to repair national historical sites were also carried out. However, the reason why the administration at that time tried to plant the concept of the people Was to unite with the national leader Park Chung-hee as the center point. So some intellectuals at this point tried to shift the intended nationalism to a popular cultural movement. They launched a movement to restore subjectivity from below With a certain popular concept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ruling power. I think this suggests the character of popular culture is that of resistance as a reaction to strong domin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process of practicing folk culture in the art world shows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and developing liberal subcultures into popular culture.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can be said to be refracted once in 1980. Through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nature of the popular cultural movement, which had been carried out before, was bound to change. It was so shocking that in the end it turned into a radical resistance movement and a social transformation movement. More and more people dreamt of a popular cultural movement led by workers, farmers, urban poor, etc. And after 1987, we can say that the movement's personality changes once again. At that time, great progress in democracy, such as the direct presidential system, was made. So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was now taking a more popular line. Starting from that time, It can be said that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began to be incorporated into a trend of popular culture in earnest.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in more detail, I'll tell you some facts.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s attempt to turn off the political interest of the people by using pop culture is found in many areas, Including the 3S policy. Here we have one interesting scene. Have you heard of the Gukpung 81? I'm sure there are some older students who are saying, "Oh, I saw that video then."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scene in interpreting the situation at that time. Kim Chang-nam says that Gukpung 81 illustrates the 5th Republic's ostentatious cultural policy. The event was held at Yeouido Square. Exactly one year after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So many Koreans can remember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 lot of people died. This would have been a huge burden on Chun Doo-hwan's regime. Perhaps,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reversed the atmosphere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rough a tremendous national cultural event called "National Pung 81." I think there should be a



lot of significance to that. A total of 14,0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event, including 194 universities, 244 clubs and a number of entertainers nationwide. It was a large-scale control cultural event with an average of 600,000 to 1 million people a day. It can be confirmed once again that the purpose was to dilute public criticism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being both timely and in content. People acknowledged that they tried to embrace some aspect of popular culture at the time of reviving forgotten folk games. But a lot more was filled with stimulating pop culture performances and the sort. I believe that it was a strategic event to prevent other voices against the regime from erupting and to achieve the so-called generalization of the people.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leads to a movement to discover our roots ideologically while opposing control imposed by cultural policies and events such as Gukpung 81. So over time, the people's cultural movement led to a movement that takes our roots more seriously. This is when singing groups, masked dance and Daedongnori appeared in each university district. In 1980, a literary magazine was founded. A literary magazine called 'Practical Literature' and if you look at the magazine's first issue, you can see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was the founding ideology. There is a slogan, "An irregular publication for literary practice in the era of the people." So in this practical literature magazine, there are not only the writings of progressive intellectuals, but also the writings of workers and farmers. In short,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a magazine that could confirm the nature of the people's cultural movement at the time and its content and depth. I think 1984 is a year that's worth remembering. Among the singing groups that were around this time, there was one called "Dawn." But how was this singing group made? They formed with purpose of distributing popular songs by gathering people from various singing groups who were active in each university. Their song "Taken Again"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r cultural movement at that time.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was developed as a yard play movement, and it was developed as a form of folk song research. Of course, there have also been several trends in the film and art circles to seek out popular cultural movements. In this situation, the People's Culture Movement Council, which was created in 1984, played a certain central role. There were several associations that tried to implement the vision of building a new culture with the independen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mong those associations, there was the People's Culture Movement Council as the center. I said earlier that 1984 was an important year for the development of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But as the liberalization of academies began, the registration of enrolled students and the student council revived at each university, the academy democratization movement began to gain momentum. Now we're in the year 1984. Gradually, the student movement develops an organized movement by forming a national coalition. On one hand, university culture has turned into a free, romantic sensibility-losing, political and overly ideological movement. And it has changed to the epicenter of the popular cultural movement that inherited that character. Nevertheles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movement-oriented university culture centered on masked dance, groups of masked dance, and singing groups at the time showed the practical



movements of young intellectuals responding to this harsh society. And it was a movement that was worth it. When the spark of democratization was firmly rooted in the June uprising in 1987 The People's Cultural Movement reached a situation where it had to adjust its rudder. At that time, the slogan of popularizing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gained strength. In 1988, the Korean Federation of National Artists, soon the Minyechong, was formed. The group was created with 839 cultural artis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literature, art, ethnic drama, movies, music, dance, architecture and photography, participating as promoters. There is a mural in Kyung Hee University's liberal arts college where I work. The title is "Youth." When the mural was painted, the pros and cons fiercely collided. Finally, the painting was allowed. At this time, a club with the names of "Life Art Play Community," "One Picture," and "Chonbit" Gathered to form a joint committee for wall painting production, and this work, "Youth," was born. This painting is the epicenter of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of the university. And it shows the expression of the university's cultural movement. According to Yoo Hong-jun, who was the head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 this painting. "It is one of the popular diffusion works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national art. And marks a page in the history of art." He stated this. What do you think? Can you feel the spirit of a young man embracing the people, including workers and farmers? I think it'll be somewhat disappointing if I just talk about art. So I'm going to introduce a folk song. The title of this song is 'Sol-ah Sol -ah Blue Sol-ah'. In 1986, Ahn Chi-hwan, a student at Yonsei University, wrote this song while watching the imprisonment of Ahn Jong-ho, a senior singer in the singing club. It was first sang by Ahn Chi-hwan himself on the campaign trail for Yonsei University's student council in 1987. And that same year, the famous "Dawn" was an illegal album. At that time, they released an album called "Song of Liberation," And this song was included in it, making it a representative pop song. Since then, they sang a lot this pop song called "People Looking for Songs". The song "No-Chat-Sa" as well. Sol-ah Sol -ah Blue Sol-ah' was included in the second album, making it more popular. It is also the first popular song to enter the pop music chart after passing the deliberation of the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So it was very meaningful. Let's listen to the song while looking at the lyrics. Let me read the lyrics.

*The strong wind blew and a mother's tears  
In this divided world that weeps in our hearts  
For freedom in a true world where the soul of the people are the owners  
Even if it's dark, the river will stir  
Green pine tree don't tremble in the wind  
Beneath bars of the prison where you are tied, we will meet there alive  
Pine tree don't tremble in the strong wind  
Beneath bars of the prison where you are tied, we will meet there alive  
Beneath bars of the prison where you are tied I will meet you alive*



I don't think an interpretation of the lyrics is needed. As you listen to this song, I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to think about the heart of a young college student, who was in the atmosphere of this popular culture movement in the 1980s. Although there is a big difference from the many colorful, sophisticated songs that you think of today in popular culture. The sincerity of the song can be interpret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depending on the viewer. I hope that you can interpret the sincerity of this song on your own.



## The Fifth Session | Conclusion

Today's lecture touched the theme of 'Popular Culture as a Dominance and Resistance Movement'. After summa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era with the story of Madame Ae-ma and the Haitai Tigers, We reflected on media consolidation and press guidelines, 3S policy and the spread of color TV, and its implications. Also, we looked at the atmosphere of the times By taking a brief step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opular culture movement. I think 1987 is a very big inflection point in Korean pop culture history. The long period of domination, censorship, oppression and discipline came to an e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K-contents and K-culture enjoy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today have accumulated their potential since 1987. Original and high-quality cultural contents cannot be produced Unless the autonomy of creation and the subjectivity of enjoyment are secured.

In the next episode, under the theme of "The Rise of the New Genera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Consumer Market," We will look at the areas of popular culture that have undergone major changes since 1987. Even Korean students may have felt that the lectures so far were a little distant. Because we talked about eras perhaps we didn't experience firsthand. Of course, those of you who are a little older, could say we have now shown your era. However, is not a recent culture all of us experienced together. But I think the lectures from now on will be more familiar to you. And I think some familiar names will appear. As well as familiar pieces of work. Then I'll end today's lecture here. See you next time. Thank you.



## Semaine 8: La culture pop en tant que mouvement social de domination et de résistance

### 1<sup>ère</sup> partie | Introduction

Origine et évolution de la hallyu : « la culture populaire coréenne en mots clés » Le cours de la semaine 8 s'intitule « la culture pop en tant que mouvement social de domination et de résistance ». On va commencer. Nous allons aborder la période de la Ve République de l'histoire du gouvernement constitutionnel, donc la période suivant le coup d'État militaire du 12 décembre, conduit par Doo-hwan Chun et la culture populaire sous son régime. Tous les indicateurs de cette période concernant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la stabilisation des prix et l'amélioration de vie de la population, semblent positifs. Pourtant, cette période est aussi marquée par le mouvement pour la démocratisation de Gwangju, violemment réprimée par Chun. On dit souvent que Chun a ouvert une nouvelle ère d'autoritarisme avec son régime.

*<Au printemps de Bitgoeul, 1980>*  
*J'étais étudiant à l'université de Chosun dans les années 80.*  
*A cette époque, j'enseignais comme professeur de sciences au lycée.*  
*Mes frères vivaient à Gwangju, mais j'étais avec mes parents à Haenam.*  
*Néanmoins, j'ai pu reconnaître 5.18.*  
*# En 1980, au printemps de Bitgoeul*  
*# Jeong Do-yong / Guide touristique sur la route de mai*  
*J'ai fait la navette d'ici (Gwangju) pendant environ une heure. à une école à Hampyeong.*  
*Je suis allé travailler, et à présent je ne pouvais plus rentrer, tous les bus étaient bloqués, donc.*  
*# Kim Hyang-soon / Guide aux archives du mouvement populaire 5.18*  
*Un autobus de Gwangju qui est arrivé dans le village isolé de Haenam où j'habite,*  
*a été garé au même endroit depuis longtemps.*  
*Parce qu'il était un temps où les bus n'allaient que de Haenam-eup à Naju, et les bus ne pouvaient pas entrer à Gwangju.*  
*(Maman) a marché de Naju à Gwangju pour amener à Naju ma sœur et mon frère qui vivaient à Yangnim-dong (Gwangju) par le sentier de montagne.*  
*Je me souviens d'être retourné à pied à Naju presque comme pour nous réfugier et d'être revenu à Haenam pendant le soulèvement.*  
*# Kim Yong-cheol / Guide du tourisme culturel*



*Comme vous le savez peut-être à cette époque-là, tous les étudiants, on s'est rassemblé devant le préfecture de Jeonnam, qui est maintenant l'ancien préfecture, et on a crié "la démocratie", et pour "la levée de l'état de siège" et a même jeté des pierres sur l'armée habilitée sous la loi martiale.*

*Moi aussi, j'ai participé à la manifestation. Lors du dernier tir de groupe le 21 mai, je l'ai vu recevoir des coups de fusil de côté.*

*Je pense que la situation était urgente et misérable dans de nombreux cas.*

*# Commentateur de 5.18*

*# Pourquoi je suis devenu commentateur de 5.18*

*Vivant à Gwangju, comme tout le monde à Gwangju éprouve, je pense d'avoir de la dette à 5.18.*

*Ce sentiment de dette, de désolation, et c'est pourquoi j'ai commencé à travailler comme commentateur.*

*Il y avait beaucoup de sentiment de dette et de désolation pour les défunts ou ceux qui étaient liés.*

*J'ai pensé qu'il pourrait y avoir quelque chose d'utile pour eux,*

*j'ai choisi de travailler comme commentateur pour eux.*

*# Pourquoi faut-il se souvenir du mouvement populaire 5.18*

*Quand il s'agit de la signification historique du mouvement populaire 5.18 et que je pense beaucoup au peuple.*

*Le peuple a été apparu de manière dynamique dans une scène historique et est devenu une grande force motrice dans la société nationale.*

*Le mouvement populaire 5.18 n'est pas une histoire qui ne reste que dans le passé.*

*De toute évidence, il y a des parties qui fonctionnent comme une force motrice pour la société future, et je pense qu'elles devraient exister aussi au présent et à l'avenir.*

*Parce que notre société peut réduire les tentatives et erreurs grâce au mouvement de démocratisation.*

*Dans un pays qui s'est proclamé république démocratique,*

*C'était un incident où des gens ont été brutalement tués par l'armée, qui, selon eux, protégerait la vie des citoyens.*

*À travers cette partie, la leçon que cela ne devrait pas être répété dans les générations futures,*

*Les citoyens ont pris conscience de ce qu'ils doivent faire et de quelque chose qu'ils doivent faire en tant que souverain.*

*# Changement de reconnaissance à propos du mouvement populaire 5.18*

*Ces jours-ci, à travers le film intitulé Taxi Driver (chauffeur de taxi),*



*beaucoup de gens l'ont reconnu, et viennent le voir.  
Je suis ravi de ça.  
La jeune génération comprend qu'il s'agit d'un mouvement populaire  
plutôt que d'une émeute ou d'un état de fait.  
Cela doit aussi être le résultat d'une certaine forme d'éducation.  
Au fur et à mesure que la vérité est révélée, les malentendus sont  
dissipés des habitants d'autres régions et le nombre d'opinions positives  
augmentent.  
# L'avenir du mouvement populaire 5.18  
Je pense qu'il faudrait faire une enquête pour révéler la vérité.  
Si la vérité est révélée, les responsables seront punis.  
Maintenant, seuls quelques membres de la nouvelle armée, dont Chun  
Doo-hwan, ont été punis, mais je pense que cela pourrait être une base  
légale précise.  
Je pense qu'il est nécessaire aussi de la réhabilitation.  
Les habitants de Gwangju sont reconnus encore qu'ils sont tous des  
émeutiers et communistes, mais la réalité est que ce n'est pas vrai.  
Je pense que les gens avaient le plus peur, c'étaient la nouvelle armée,  
à mon avis.  
Il y a encore beaucoup de parties qui sont déformées en vivant sans  
vergogne.  
Le mouvement populaire 5.18 ne peut être considéré que comme une  
dépression pour l'histoire douloureuse d'une époque.  
Ce mouvement populaire 5.18 doit servir de tremplin, et notre histoire  
doit être positionnée comme un nouveau point de départ pour le  
développement de notre histoire moderne.  
Nos commentateurs 5.18 travaillent dur avec passion pour répandre la  
vérité sur Gwangju.  
Nous sollicitons votre intérêt et soutien auprès des étudiants et  
visiteurs.*

Dès qu'il prend le pouvoir, il commence à fusionner et supprimer certains médias. Il décide donc d'utiliser la même stratégie que le régime de Chunghee Park, mais de manière plus efficace, pour contrôler la population et maintenir son pouvoir. Leurs stratégies se ressemblent, mais elles diffèrent par certains aspects. Pendant cette période, la culture pop était l'arène où s'affrontaient différentes idées. C'est ce que l'on pourrait conclure. Aujourd'hui, notre but est de comprendre comment la culture populaire a progressé, en tant que mouvement de résistance, sous le régime du Chun.

Mots clés : le film *Madame Aema*, l'équipe de baseball Haitai Tigers, la fusion et la suppression de certains médias, la politique des 3S, le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J'ai préparé ce cours en fouillant dans mes plus vieux souvenirs. J'espère qu'il sera l'occasion de découvrir un autre aspect de la culture populaire.



## 2<sup>e</sup> partie | *Madame Aema* et les Haitai Tigers

*Madame Aema* et *Les Haitai Tigers* Comment le film *Madame Aema* nous est-il parvenu ? Je voulais poser cette question. Si vous avez bien suivi le dernier cours, vous comprenez déjà pourquoi, sous le régime de Chunghee Park, décadence et plaisir n'étaient pas tolérés. Ces deux concepts se définissent de manière subjective et arbitraire. Sous le régime de Doo-hwan Chun, la situation a beaucoup évolué. Décadence et plaisir ne sont pas compatibles avec ce régime militaire, mais ils étaient plutôt tolérés pendant cette période. Normalement, un régime qui remplace un régime autoritaire, a tendance à donner la carotte plus que le bâton. En tant que régime autoritaire qui a violemment réprimé le mouvement de démocratisation du 18 mai 1980, au lieu de maintenir une stratégie de contrôle et de répression, Le régime de Chun choisit d'adoucir les réglementations concernant la culture pop. En même temps, il tente de détourner l'attention du public de la politique. Cette stratégie n'est pas officiellement annoncée par Chun, mais c'est comme cela qu'on la perçoit. Le régime de Chun a-t-il vraiment usé d'une politique obscurantiste pour détourner l'attention du public vers la culture populaire ? Certains persistent à dire que ce n'était pas le cas, mais je crois personnellement que ses politiques en matière de culture populaire étaient créées dans une idée d'obscurantisme. Il déploie la politique des 3S en secret. Ici, 3S veut dire Screen, Sports, Sex (cinéma, sportif, sexe). On peut dire que le film *Madame Aema* est un symbole de la politique de Doo-hwan Chun, en matière de cinéma. On va aborder plus en détail la politique des 3S plus tard. Maintenant, on va se concentrer sur *Madame Aema*. Il a été projeté pour la première fois en février 1982. On peut dire qu'il est le premier né de la politique sur le cinéma. Juste après sa sortie, le film se classe au premier rang des films coréens. Il est tellement populaire que 13 autres films éponymes seront réalisées par la suite jusqu'à 1996. Pour les quaranténaires, cinquanténaires et sexagénaires, c'est le film érotique par excellence. Des imitations comme *Paris Emma* et *Gypsy Emma* ont vu aussi le jour, dans cette catégorie, souvent avec des titres composés de mots qui se combinent rarement. Ces nombreuses œuvres témoignent de l'immense impact de ce film sur la société coréenne. Pourtant, ses suites font face à des critiques pour leur caractère sexuel. c'est encore plus vrai pour ses imitations. Beaucoup d'entre elles ne sont ni plus ni moins que de médiocres films érotiques. Le régime de Chun ne les a jamais officiellement encouragés. Pourtant, il est vrai que sa politique d'assouplissement des réglementations concernant le cinéma a contribué au boom des films érotiques, et par conséquent, à une indifférence générale du régime vis-à-vis de l'industrie du sexe, créant plutôt une sorte de synergie. Cela pourrait étonner nos étudiants étrangers. En Corée, ce n'est qu'en 1982 que le couvre-feu est levé. C'est donc à partir de ce moment que la soi-disant culture de la nuit peut enfin prospérer. Au cours du régime de Chun, l'industrie du sexe prend son essor. Il est difficile de séparer le boom des films érotiques de l'élargissement de



l'industrie du sexe. Voici le résumé de *Madame Aema*. Aema est le nom de l'héroïne. Elle est mariée mais son couple bat de l'aile. Son mari, un homme d'affaires, se désintéresse d'elle. Ils ne s'aiment plus. Un jour, son mari, est mêlé par imprudence à une affaire qui le fait condamner à 8 ans de prison. Sa belle famille la prive de son fils et Aema devient de plus en plus isolée. Elle souffre au sein d'une famille patriarcale, mais ne quitte pas son mari et continue de lui rendre visite. Son entourage lui suggère de divorcer mais elle n'ose pas. Il faut savoir qu'Aema est un personnage inédit dans l'histoire du film coréen, qui réfléchit sérieusement à ses désirs sexuels et qui arrive à les réaliser. Souffrant de sa solitude et de ses désirs inassouvis, par l'absence de son mari, elle hésite entre son désir de déviance sexuelle et la fidélité. Elle satisfait ses désirs sexuels en se masturbant, mais cela ne suffit pas. Plus tard, elle couche avec son ancien amant, dont le caractère violent devient insupportable. Après lui, elle rencontre un artisan et couche avec lui. Après l'avoir rencontré, Aema réfléchit beaucoup au divorce. Un jour, l'artisan propose à Aema de partir avec lui en France et elle semble aussi favorable à cette idée. Mais c'est le jour où son mari sort de prison. Le film se termine en montrant Aema aller à la prison à la rencontre de son mari. Avant *Madame Aema*, la plupart des films traitant de sexualité féminine abordaient la vie de femmes en souffrance, exclues, comme des hôtesse de bar, des victimes de la société patriarcale, etc. Mais la sortie de *Madame Aema* brise cette tendance et montre que les femmes ont aussi des désirs sexuels tout comme les hommes. Avec cela, se propage l'idée que les femmes sont aussi des acteurs autonomes capables de réaliser leurs désirs. Pourtant, tout comme l'héroïne du film *Madame Freedom* dans les années 50, Aema retourne finalement à sa famille. Elle finit par se plier à la réalité en se soumettant au stéréotype traditionnel de la famille parfaite. Malgré cela, il y a une particularité. Pour certains, *Madame Aema* n'est qu'un film érotique vulgaire, Mais il a certainement une valeur qui ne mérite pas ce genre de commentaire. Pour vous raconter une autre histoire autour du film, Soyoung Ahn, l'actrice incarnant Aema, est devenue une star du jour au lendemain. Pour autant, ce rôle lui collant à la peau, elle n'arrive pas à impressionner le public dans d'autres rôles. Malgré cela, elle a toutefois contribué à construire un environnement pour les actrices dans les années 1980. Beaucoup d'actrices sont représentatives des films des années 80, comme Misook Lee, Mikyoung Won, Bohee Lee... Si elles ont pu montrer leurs charmes à volonté, à cette époque, c'est grâce à cet environnement, cette scène imaginaire, je veux dire, qu'a créé Soyoung Ahn. Pour conclure, je pense que la sortie de *Madame Aema* et le boom des films érotiques sont les clés pour comprendre l'environnement culturelle sous le régime de Doo-hwan Chun.

Maintenant, on va parler des Haitai Tigers et réfléchir au sens de leur « dynastie ». Dans le cadre de sa politique des 3S, Chun encourage le sport professionnel. Créé en 1982, Le championnat de Corée du Sud (ligue KBO) connaît un grand succès avec l'introduction de son système de compétition entre régions ou villes. Avant cela, c'est le championnat de baseball entre les lycées qui fascine le public. Quand j'étais tout petit, il y avait une télé chez moi. Je me souviens des jours où le voisinage et les étudiants du quartier se rassemblaient pour voir les finales des matchs des championnats de baseball



inter-lycée. Chaque équipe représentait son lycée et sa région d'origine, et cette compétition entre les régions a rendu le championnat très populaire. Ligue KBO a adopté le même système, la clé de la réussite. À cette époque-là, le lien familial ou régional a beaucoup d'impact dans la société coréenne, ce qui est, par ailleurs, toujours vrai aujourd'hui. Les équipes de baseball deviennent, par conséquent, pour la population, un symbole d'identité ou de fierté régionale. *Les Haitai Tigers* sont donc l'équipe ou la mascotte de la région Honam et de la ville de Gwangju. Le stade de baseball Mudeung qui s'y trouve est leur domicile. *Les Haitai Tigers* étaient une équipe adorée des habitants pendant 20 ans mais par la suite, l'entreprise Haitai qui la sponsorisait, connaît des difficultés financières et finit par être absorbée par l'entreprise Kia Motors, et l'équipe devient les Kia Tigers. Je parle des Haitai Tigers pour deux raisons principales. 1. C'est un bon exemple qui illustre l'efficacité de la politique sportive, dans le cadre de la politique des 3S. 2. L'histoire des Haitai Tigers est représentative de l'histoire de la politique coréenne de l'époque. En fait, Haitai n'a pas la capacité financière de créer une équipe de baseball. Par rapport aux autres entreprises comme Samsung, basée sur Daegu, Haitai est une petite entreprise. Mais créer une ligue nationale de baseball, sans équipe pour Honam risquait d'être interprété comme une exclusion de la région. Pour éviter cela, le gouvernement approuve la création de l'équipe Haitai. C'est un événement inimaginable pour cette entreprise à l'époque car cela est au delà sa capacité. Au début, l'équipe Haitai ne compte que 15 joueurs. Quand on pense au nombre minimum de joueurs pour jouer au baseball, on se rend compte que c'est trop petit pour constituer une équipe. Donc, la première année de sa création, elle ne s'illustre pas par des bons résultats. De plus, l'équipe ne comprend que cinq lanceurs. Il est donc quasiment impossible de jouer toute une saison avec si peu de lanceurs. Par ailleurs, peu après sa création, l'entraîneur quitte l'équipe, après un conflit avec son entraîneur adjoint. Haitai doit donc finir la saison avec un entraîneur intérimaire. Faute de joueurs, Seong-han Kim, qui devient un batteur légendaire dans l'histoire du baseball coréen, est désigné à la fois comme premier lanceur et batteur. La vraie légende des Haitai Tigers commence à partir la deuxième année de la création de la ligue KBO. Comme l'équipe n'a toujours pas suffisamment de joueurs, il est difficile d'espérer de grands résultats. Toutefois, avec l'arrivée de Eungyong Kim, un entraîneur ayant étudié aux États-Unis, l'équipe commence à prendre ses marques. Haitai remporte la victoire la deuxième année, c'est un véritable miracle. Malgré le manque de joueurs, d'investissement et de reconnaissance, Haitai redonne de la fierté aux citoyens du Honam, qui étaient exclus jusque-là, depuis le régime de Chunghee Park. Park a construit beaucoup de zones industrielles à Busan, Ulsan, Daegu, Gumi et Pohang créant avec cela, beaucoup d'emplois. Les nouveaux moteurs de croissances du pays ont été créés dans ces régions. Les infrastructures comme les autoroutes ont aussi été développées à Daegu, à Gyeongsangbuk-do et aussi à Busan et Ulsan, à Gyeongsangnam-do. Par contre, Homan est une région qui a été exclue de cette vague de développement. Il y a un homme politique représentant la région de Honam qui veut remonter le moral aux habitants. C'est *Daejung Kim*. Il se présente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mais ne parvient pas à l'emporter. Dans cette situation, le Honam se sent exclue. La victoire de Haitai à cette époque redonne de la fierté aux habitants et console leur tristesse. Dès 1986, *Les Haitai Tigers* deviennent une équipe invincible, d'où l'expression « Dynastie Haitai ». De 1986 à 1989, elle remporte le championnat, quatre années consécutives. À part en 1990, elle sort vainqueur en 1991, 1993, 1996, 1997. L'équipe disparaît dans les coulisses de l'histoire, au début de l'année 2000, car son sponsor, l'entreprise Haitai, est en difficulté financière. Malgré cela, il est vrai que, de 1980 à 1990, *Les Haitai Tigers* sont une équipe composée de joueurs forts et à l'esprit combatif. Les résultats de l'équipe, mais aussi les statistiques de chacun des joueurs, sont vraiment incomparables. C'est une équipe composée de stars du baseball. Ces joueurs auraient pu recevoir de meilleurs traitements dans d'autres équipes. Mais ils ont choisit la fierté d'être les joueurs Haitai. Cette fierté d'être représentant du Honam et de Gwangju et le soutien des habitants plein d'espoir rendent loyaux les joueurs à leur équipe. Jusque là, on s'est concentrés sur les succès remportés par *Les Haitai Tigers* mais il y a beaucoup d'histoires cachées dans les coulisses. Je ne vais vous parler que de deux choses parmi elles. Je vous ai dit que la région Honam et Gwangju souffraient d'exclusion et de discrimination depuis le régime de Chunghee Park. En plus de cela, en 1980, les citoyens ont vécu un massacre effroyable commit par le régime de Doo-hwan Chun. Si *Daejung Kim*, a été aussi longtemps adulé par la population du Honam, c'est à cause de cette expérience d'exclusion et de discrimination. Durant le régime de Chunghee Park, il perd injustement l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Il perd toujours de très peu. Le régime militaire de Park tente même plusieurs fois de l'assassiner. Le Honam rêve de retrouver un pouvoir politique à travers *Daejung Kim*, et de se débarrasser de la tristesse, de la colère, et du désespoir à travers *Les Haitai Tigers*. *Les Haitai Tigers* ont donc joué un rôle de consolateur pour les gens en jouant au stade Mudeung. C'est ce que je vous ai dit tout à l'heure. Cette interprétation est subjective mais elle n'est pas sans fondement. Maintenant, je vais vous raconter une histoire un peu personnelle. Je suis né à Gwangju et mon père était un grand fan des Haitai Tigers. Je me souviens toujours de la chanson chantée par les fans lors des matchs. J'avais mentionné cette chanson au début de nos cours. La chanson *Les larmes de Mokpo* de Nanyoung Lee était l'hymne chanté au stade Mudeung par les supporters. Chanter cette chanson était le moyen d'exprimer leur fort désir de victoire. En fait, pour un hymne, les paroles sont très tristes. Il est difficile d'expliquer cette ironie. Je pense que cette chanson représente l'affection des habitants pour *Daejung Kim* mais aussi l'espoir de surmonter leur histoire triste. *Daejung Kim* avait passé une enfance sombre et pauvre. Il est allé à l'école primaire et au lycée à Mokpo. Pour les habitants du Honam, cette chanson est plus qu'une chanson à la mode, elle est le symbole de leur identité ou d'un rêve nouveau. Un peu tout à la fois. Je vais vous raconter une autre histoire peu connue. De 1982, année de la première année de la ligue KBO, à 1999, la veille du nouveau millénaire, *Les Haitai Tigers* n'ont jamais joué à Gwangju un 18 mai. À votre avis, pourquoi ? Ce jour rappelle la tristesse, la douleur et la colère de la population de Gwangju. Le 18 mai 1980 est le jour où a eu lieu le mouvement pour la

démocratisation à Gwangju. Lors de ce soulèvement, beaucoup de civils sont tués par le nouveau régime militaire. Chaque année, à l'approche du 18 mai, le régime de Doo-hwan Chun ne pouvait que s'inquiéter d'un éventuel soulèvement au stade de baseball par les citoyens de Gwangju. Pour éviter que cela se produise, Haitai a longtemps été interdite de jouer à domicile jour-là. En 2017, le quotidien Kyunghyang a publié un article révélant cette réalité cachée. Selon l'article, la découverte d'un dossier écrit par le commandement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révèle que ce dernier ordonnait de changer les dates des matchs qui étaient prévus à Gwangju les 18 mai. Voici une autre histoire intéressante. Avant son tout premier match à domicile à Gwangju le 18 mai 2000, L'équipe comptait 9 victoires pour 2 défaites pour les matchs ayant eu lieu un 18 mai. C'est comme si les joueurs se disaient avant chaque match ayant eu lieu à cette date : « il ne faut absolument pas perdre aujourd'hui ! » Dans le livre *Les Haitai Tigers* et *Daejung Kim*, qui parle de l'histoire de l'équipe Haitai, On trouve le paragraphe suivant : « Haitai était l'équipe la plus forte, dont les joueurs étaient devenus les héros des plus faibles, une équipe forte qui se battait comme les faibles, un vainqueur, aimé des perdants ». Voici un autre paragraphe qui donnera une idée de ce que représentait *Les Haitai Tigers* pour les citoyens de Gwangju, dans les années 80. « Avec l'ombre de la mort partout, les citoyens de Gwangju devaient se méfier les uns des autres, quand ils étaient en groupe par crainte de l'éventuelle présence d'un agent des services de renseignement. Pendant la journée, ils devaient continuer à vivre et à travailler avec ce sentiment de culpabilité dans une ville entachée par le sang de leur famille et de leurs amis. Pour eux, le stade Mudeung était le seul endroit où ils pouvaient crier à tue-tête et *Les Haitai Tigers* étaient la seule bouffée d'air qui leur permettait de ressentir la joie de la victoire et de la fierté ». Bon, je vous ai parlé de *Madame Aema* et des *Haitai Tigers*. Vous avez pu voir à quoi ressemblait la culture pop durant régime de Chun mais aussi ce qu'il représente dans l'histoire de la politique coréenne, de manière indirecte. À partir de la prochaine partie, on va voir plus en détail l'atmosphère de la société et la culture populaire de l'époque.

### 3<sup>e</sup> partie | Suppression et fusion de certains médias, politique des 3S et télévision couleur

Cette partie s'intitule « suppression et fusion de certains médias, politique des 3S et télévision couleur ». Et comme sous-titre, on pourrait mettre, selon moi « Une ère de barbarie ». Une des mesures qui montre bien la censure des médias de masse, durant régime de Chun est la fusion et la suppression de certains médias, par le comité national des mesures d'urgence, en novembre 1980. Doo-hwan Chun les a justifiées par la nécessité de réorganiser le monde des médias peuplé de trop de sociétés de télécommunication, de diffusion et de presse, et la nécessité de créer une chaîne publique. C'était une mesure extrême de contrôle des médias. Évidemment, il avait une intention cachée. Chun voulait renvoyer les journalistes qui n'étaient pas favorables au régime et manipuler le contenu de l'information. C'est à cette époque-là qu'a commencé les mesures d'interdictions sur la presse, la diffusion et la télécommunication. Il y avait beaucoup d'histoires incroyables à ce sujet. Le 12 novembre 1980 au soir, le gouvernement rassemble tous les dirigeants des entreprises de presse sous prétexte d'une réunion et d'une conférence avec le chef du comité national des mesures d'urgence. 13 directeurs de publication et 17 dirigeants basés sur Séoul, rédigent tous une promesse au comité national des mesures d'urgence. Les entreprises situées en province sont forcés faire la même chose par les agences régionales de sécurité parfois avec cruauté, ce qui est absolument immoral. Au total 45 responsables indiquent par écrit qu'ils abandonnent leur entreprise sans aucune condition. Cela serait inimaginable aujourd'hui, n'est-ce pas ? Il y a par ailleurs une clause supplémentaire de non divulgation. Les mesures de fusion et de suppression sont mises en œuvre deux jours après. Voici ce qui c'est passé après cette mesure. Le nombre des principaux quotidiens est réduit de 7 à 6 et les journaux économiques, de 4 à 2. Les journaux régionaux, passe de 14 à 10 sous le prétexte d'un principe de « un seul journal par région » Les deux journaux Hapdong et Dongyang sont absorbés par Yonhap. Le régime interdit même l'envoi de correspondants entre organe de presse de la capitale et des provinces. Pour toutes les entreprises du pays, l'organe de presse Yonhap devient alors la seule source d'informations vers les actualités des autres régions. C'est un canal de communication contrôlé par le régime. Les médias sont sous contrôle du régime, ce qui facilite la domination. TBC TV, chaîne du groupe Samsung fusionne avec KBS pour devenir KBS 2. MBC échappe à cette vague, mais elle voit KBS devenir propriétaire de 65 % de ses actions. Les chaînes de radio connaissent une situation similaire. TBC de Samsung et DBS du quotidien Donga sont avalées par KBS. Cette restructuration est responsable de licenciements sans préavis d'innombrables employés de studios télé ou de journaux. Cela jette le monde des médias dans le chaos. Pour éviter tout malentendu, je vous précise qu'il ne faut pas partir du principe que la chaîne publique est forcément mauvaise. Pourtant, durant le régime de Chun, elle sert de base à la nationalisation des chaînes et au contrôle de l'information. Il veut mettre la main sur



les médias de masse pour contrôler l'opinion publique. Voici une histoire connue qui rend bien compte de la situation. Lors de la dernière émission de la chaîne Tongyang (TBC) intitulée « Adieu, chers amis de TBC » et diffusée en direct, Eunha Lee, star de la chanson, fond en larmes ne pouvant accepter que la chaîne doive disparaître du jour au lendemain. C'était une réaction tout à fait naturelle. Pourtant, pour avoir pleuré, elle est interdite d'antenne pendant 3 mois. Comme c'était une émission en direct, Comme Eunha Lee, beaucoup de célébrités ont du mal à cacher leurs émotions et leurs larmes. Si vous regardez leur visage, vous pouvez voir à quel point la situation était absurde et soudaine. Une autre preuve qui montre que le président Chun était un dictateur est la présence de directives sur la presse et son contenu. Avoir des directives gouvernementales pour conditionner l'écriture des articles, est inacceptable dans un pays moderne et libéral. Après avoir forcé la fusion et la suppression de certains médias, Chun met en œuvre une loi sur la presse en décembre et crée un bureau des médias affilié au ministère de l'Information et de la Culture pour en faciliter le contrôle. Ce bureau s'occupe de fixer les lignes directrices pour chaque entreprise de presse. Bien sûr, quand le gouvernement veut manipuler le contenu, plusieurs organisations publiques s'y affaiblissent notamment l'Agence de planification de la sécurité nationale, le commandement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ou le bureau d'information de la police. On dit que derrière le bureau des médias, il y avait le secrétariat de l'administration affilié au secrétariat de la présidence. Cela signifie que le président contrôle tous les contenus diffusés par les médias, le poids de chaque information et même les nuances. Je vais vous montrer quelques exemples du niveau de censure de l'époque. D'abord, le gouvernement vérifie le contenu et la forme des articles. C'est sa première mission. Puis, il décide même des contenus à publier, quel ton utiliser, sur quel page un article est publié, combien d'espace lui est consacré, les formulations acceptables ou interdites dans les titres, etc. Tout cela est contrôlé par le gouvernement. Aujourd'hui les journaux télévisés sont diffusés à 20h. Mais jusqu'à récemment, c'était plutôt 21h, n'est-ce pas ? À cette époque-là, c'est le JT de 21h qui a eu le plus grand impact. La cue-sheet du JT de 21h est censuré avant diffusion. Il en va de même pour le contenu, le titre, la taille et le style des sous-titres, l'espace entre les images et les sous-titres, etc. tout est fixé par le gouvernement. Bien sûr, les scripts subissent aussi la censure. Beaucoup de journalistes sont battus et torturés pour avoir violé ces réglementations. D'un autre côté, il a été également confirmé que le régime utilisait beaucoup de moyens malhonnêtes comme des pots-de-vin afin d'apprivoiser les journalistes. Althusser affirmait que si un régime voulait renforcer son pouvoir, il devait savoir utiliser les appareils d'oppression tels que l'administration, l'armée, la police, la prison, etc. D'autres outils comme la religion, l'éducation, la culture et les médias sont appelés les « appareils idéologiques d'État. » Il est essentiel de dominer ces appareils de manière efficace. Les premiers fonctionnent avec la violence et la contrainte. Alors que les seconds avec une idéologie. Selon Althusser, cette idéologie appelle à des acteurs. Dans le cas du régime de Chun, cette mesure appelle un modèle de citoyen emblématique de la Ve République, et oblige le peuple à s'engager dans cette relation imaginaire. Quand



j'étais petit, on utilisait souvent l'expression « taeng Chun. » Je me souviens de l'image de montre affichée à l'écran avant le JT de 21h. On pouvait voir le mouvement des aiguilles de cette montre numérique. Quand les aiguilles désignaient 21h, on entendait le son « taeng ». Juste après ce son, le présentateur commençait toujours le journal en disant « Aujourd'hui, le président Chun... » D'où l'expression « taeng Chun. » Le son qui marque le début de l'émission et les premiers mots prononcés par le présentateur sont combinés pour devenir le surnom du JT de 21 h. Cette expression a été beaucoup utilisée par les citoyens, ce qui montre à quel point le journal d'alors était caricatural. Phonétiquement « Taeng Chun » ressemble au mot désignant une petite somme d'argent. C'était donc un jeu de mot signifiant que le contenu du journal était sans valeur. Ces journaux télévisés sont sur Youtube. Si vous retourniez à cette période étouffante, comment réagiriez-vous ? Moi, si je retournais à cette époque, je ne regarderais pas les journaux télévisés.

Passons au prochain sujet : la politique des 3S et la télévision couleur. Si on comprend ce qu'est la politique des 3S, il est facile de comprendre la relation entre la culture de masse de l'ère d'oppression et les médias de masse. Comme je vous le disais en parlant de *Madame Aema*, la politique des 3S est mise en œuvre de manière indirecte et discrète. Évidemment, Chun sait distinguer les domaines où imposer des contraintes et ceux où il doit faire preuve de souplesse. La politique des 3S a donc pour but de créer les divertissements pour le peuple souffrant de l'oppression. C'est le diagnostic que je fais de la situation. Parlons d'abord de la politique sur le cinéma. Doo-hwan Chun lève le couvre-feu et supprime les règlements sur l'uniforme et le style de cheveux chez les étudiants. Ensuite, il ouvre les cinémas de minuit. C'était vers mars 1982. Pour l'industrie du sexe, c'est une bonne occasion pour élargir le marché. Le premier film projeté dans les cinémas de minuit est *Madame Aema*. Son titre et son contenu sont inspirés du film érotique français *Emmanuelle* sorti en 1974. Comme je l'ai expliqué, après le succès de *Madame Aema*, les films deviennent de plus en plus érotiques et mettent en avant le désir sexuel féminin. Selon Yeonho Lee, il y avait en gros deux types d'histoire privilégiées par les films érotiques d'alors. l'infidélité des femmes mariées riches vivant en ville et celle des filles de la campagne qui se dévergoncent. Je ne suis que partiellement d'accord avec lui. Sous le régime de Chung-hee Park, le boom des films érotiques n'aurait jamais été possible. Il souhaitait éviter toute forme de décadence et de plaisir, par rigorisme en quelque sorte. Il a imposé ce rigorisme même à la culture populaire. Toutes les scènes érotiques ou même celles qui auraient pu avoir un caractère sexuel étaient censurées sous le régime de Park et ne pouvaient être projetées. Elles étaient toutes supprimées. Par opposition, Doo-hwan Chun adoucit cette censure. Cet adoucissement a joué un rôle clé. Elle est à la base de la politique des 3S et destinée à lui garantir sa pérennité, et prouve de manière indirecte l'existence d'une telle politique. Voici les titres des films érotiques du début des années 80. On peut dire que *Parrot Cries with Its Body*, *Between the Knees*, *The Stolen Apple Tastes Good*, *A Night of Burning Bone and Skin* *An Ark Shell Lands on Earth*. Certains films mettent en vedette les plus grands réalisateurs et artistes, du

moment. Quelques œuvres parmi eux sont reconnus comme des films de qualité. Par exemple, Parrot Cries with Its Body a été réalisé par le grand maître, Jin Woo Chung, qui est toujours vivant. Dans les années 60, les trois meilleures actrices souvent applaudies la troika des actrices étaient Jeong-hee Yoon, Moonhee et Jeong-im Nam. Après elles, les années 70 voient apparaître une nouvelle troika. Yun-hui Jeong est en tête et joue dans le film Parrot Cries with Its Body Ce qui est intéressant, c'est que les deux autres actrices de cette nouvelle troika, Ji-In Yoo et Mi-hee Chang ont aussi joué dans des films érotiques. On peut dire que Parrot Cries with Its Body, fait partie des films qui racontent l'histoire d'une fille de la campagne qui se dévoie, d'après les catégories de Yeonho Lee, Lors de la cérémonie des Grand Bell Awards. Yun-hui Jeong remporte le prix de la meilleure actrice avec ce film. Voilà, je vous ai expliqué comment un nouveau courant de cinéma s'est créé durant le régime de Chun et je crois que c'est clair maintenant. La propagation de titres, de contenus et d'expressions qui étaient presque inimaginables dans les années 70, ont été sans aucun doute, un changement majeur. Évidemment, la production de films aussi provoquants et le fait qu'ils sont acceptés du public sont le reflet d'un grand changement culturel. Maintenant, on va parler de la politique lié au sport. C'était la politique la plus ouvertement développée parmi les trois S. Comme il a violemment réprimé le mouvement pour la démocratisation de Gwangju du printemps 1980, Doo-hwan Chun doit organiser des événements pour détourner l'attention du public et éviter un éventuel risque politique. C'est pourquoi la Corée du Sud organise les Jeux asiatiques en 1986 et les Jeux Olympiques d'été en 1988, à Séoul. C'est dans ce contexte que le pays voulait accueillir les Jeux Olympiques.

*<Nouvelles de Corée regardant à nouveau (10.08.88)>*

*# La 24e cérémonie d'ouverture des Jeux olympiques de Séoul,  
Nouvelles de Corée 1988*

*Après le discours d'ouverture de Park Se-jik, président du Comité d'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de Séoul, il y a eu un discours de bienvenue de Juan Antonio Samaranch, président du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Séoul au monde, le monde à Séoul !"*

*La signification de l'harmonie créée par les spectateurs a été représentée avec la section de cartes du mot 'Harmonie', tandis que les médaillés coréens des Jeux olympiques passés ont tenu le drapeau olympique et l'ont hissé.*

*2 400 pigeons, symbolisant les 24e Jeux olympiques, ont pris leur envol, rehaussant l'ambiance de la fête de la paix.*

*Après avoir reçu la flamme du marathonien M. SOHN Kee-Chung, Lim Chun-ae a fait un tour du terrain.*

*Lorsqu'elle a atteint à la plate forme de la flamme olympique et qu'elle a remis la flamme aux trois relayeurs, la partie inférieure de la plate forme s'est rapidement transformée en ascenseur et est montée devant*

*le brasier de la flamme.*

*Trois relayeurs de personnes ordinaires, dont le professeur d'éducation physique Jeong Seon-man, le marathonien Kim Won-tak et Son Mi-jeong, l'étudiante au lycée Seoul Arts, ont déplacé et allumé le feu du soleil sur le brasier de la flamme.*

*Environ un millier de troupes de taekwondo ont réalisé l'exploit de couper avec les mains les planches de pin pour signifier le but de faire tomber les barrières qui bloquent la société humaine.*

*Après que le silence a été passé sur le mur en ruine, un enfant a été apparu et a roulé un cerceau pour niveler le sol, préparant un endroit pour que les pousses soient sorties de terre.*

*Sur la pelouse, qui formait un terrain de jeux pour 1 200 enfants, qui ont joué à sauter à la corde, à faire tourner des moulinets et au dacau, invitant les spectateurs dans l'univers des enfants.*

*Toute la famille du village planétaire s'est finalement tenue debout sur une scène, en chantant <la main dans la main>.*

*Un jardin où cinq milliards de personnes ne se détestent pas, ne se trompent pas et ne se disputent pas.*

*Les Jeux olympiques de Séoul de cette année sont un festival qui met tout en œuvre pour exprimer l'idéal des Jeux olympiques, le rêve de l'humanité, sous le thème « franchir le mur ».*

*Ces jeux, qui sont l'unité des étoiles, seront une opportunité significative pour parvenir à la paix et à l'harmonie dans l'humanité.*

*"La finale du 100 m masculin se déroulera sur la piste."*

*Les 24e Jeux olympiques de Séoul, l'événement mondial qui a attiré le plus d'attention parmi 237 médailles d'or*

*Dans la finale du 100 m, le Canadien Ben Johnson a établi un nouveau record du monde à 9 secondes 79 et a terminé premier.*

*La médaille d'or a été privée pour disqualification en raison de l'usage scandaleux de drogues, et l'honneur de la victoire a été revenu à Frederick Carl Lewis des États-Unis.*

*Les Jeux olympiques de Séoul ont établi de nombreux nouveaux records du monde et records olympiques.*

*Alors que les joueurs vedettes initialement attendus ont stagné, pourtant les nouveaux inconnus ont obtenu de bons résultats.*

*De plus, l'Union soviétique et l'Allemagne de l'Est ont montré leur apparition en tant que puissances sportives, devançant les États-Unis dans la compétition pour les médailles.*

*Dans la classe de lutte gréco-romaine de catégorie 74 kg, Kim Young-nam a battu le lutteur soviétique Daoulet TOURLYKHANOV en finale.*

*Il a été le premier lutteur coréen à remporter une médaille d'or.*

*Kim Sung-moon, qui pesait 68 kg, a remporté la médaille d'argent.  
Le gréco-romain Jae-Suk Lee dans la catégorie 52 kg, Dae-hyun An dans la catégorie 62 kg et Sang-Kyu Kim dans la catégorie 82 kg ont respectivement remporté des médailles de bronze.*

*Dans la nuit de Chuseok, lors de la finale de la catégorie 62 kg en judo, qui s'est déroulée dans l'attente du peuple, Kim Jae-yup a battu l'Américain Kevin Asano et a fièrement remporté la médaille d'or.*

*La nuit suivante, dans la catégorie 65 kg, Lee Kyung-keun a également battu Janusz Pawlowski de Pologne et a ajouté une médaille d'or.*

*Chun Byung-kwan, surnommé un petit géant, a soulevé les 260 kg dans la catégorie d'haltérophilie 52 kg et a remporté la première médaille d'argent pour un Coréen en 32 ans.*

*Hyung-kun Lee, qui pesait 82,5 kg en haltérophilie, a également remporté la médaille de bronze.*

*Young-chul Cha, un joueur emblématique de tir coréen, a remporté la médaille d'argent en établissant un nouveau record coréen avec 702,8 points dans le tir de courte distance sous-calibré masculin.*

*Jong-Hoon Park, qui a atteint 100 000 points lors du deuxième saut individuel en gymnastique, est devenu le premier gymnaste coréen à remporter une médaille de bronze dans l'histoire olympique, ainsi il a montré le potentiel de la gymnastique coréenne.*

On dit que le pays a apporté un grand soutien à la Coupe du monde de football de 1986 qui s'est tenue au Mexique. Pourquoi le régime veut-il organiser de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 Chun utilise ces événements pour faire part du développement de la Corée aux autres pays et pour insuffler de la fierté au peuple, en lui montrant que leur pays est en voie de devenir un pays développé. Selon un sondage d'opinion de l'époque, environ 90 % de la population est favorable à l'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Pourtant, quand y repense, certains mettaient en doute l'organisation de ces événements au regard de la capacité financière de la Corée du Sud. Je pense que le régime a tenté d'organiser des événements malgré une capacité financière limitée. Chun a plutôt forcé le pays à y arriver. Par exemple, il a ordonné le démantèlement des bidonvilles de Séoul pour cacher aux invités étrangers qu'une population pauvre habitait aussi Séoul. Le régime commence subitement à redévelopper ces zones et les habitants sont expulsés de chez eux sans garantie minimum de qualité de vie. Ensuite, le baseball, le *Ssireum* (lutte traditionnelle coréenne) et le football professionnels sont créés par le régime. Le baseball en 1982, puis le foot en 1983. En 1983, la ligue de basket « Fête du basketball » est lancée et n'est d'ailleurs pas complètement professionnelle au début. La ligue professionnelle de volley-ball commence en 1984, elle aussi sous le régime de Chun. Comme je vous l'ai expliqué en parlant des Haitai Tigers, le baseball professionnel ayant adopté un système de concurrence interrégions, il connaît un grand succès dès le début. Le 27 mars 1982 a lieu le premier match de la ligue de baseball, entre les MBC

Blue Dragons et les Samsung Lions, Doo-hwan Chun effectue le premier lancer. Je ne suis pas qualifié pour juger l'efficacité de cette politique des sport mais je peux dire que cela a aussi créé une situation pas forcément désirable pour Chun. Par exemple, c'est grâce à la popularité des Haitai Tigers que *Daejung Kim*, homme politique et bête noire du régime, a pu survivre durant cette période. En tout cas, il est indéniable que cette politique des sports a eu aussi un aspect positif. Elle a beaucoup contribué à la mondialisation du sport coréen de haut niveau et a fait naître de bonnes opportunités pour l'élargissement du marché des articles de sport. Les Coréens se sont mis à s'intéresser aux activités de loisir. Même si son intention n'était pas pure, cette politique a néanmoins contribué au développement du pays et a réussi à atteindre son but, malgré de mauvaises intentions.

Passons au troisième S, la politique de l'industrie du sexe. Le 5 janvier 1982, le couvre-feu est levé et cela change le quotidien des citoyens à un point que tout le monde peut ressentir. Les bars, les motels, les bars à hôtesse et même les établissements de prostitution voient le jour. L'industrie du sexe connaît un grand essor. Le boom des films érotiques va de pair avec cette situation. Les boîtes de nuit se multiplient et les bars à hôtesse font circuler l'argent. Cela crée enfin un environnement favorable aux organisations criminelles. C'est une idée que certains soutiennent. Les Coréens sont tous familiers avec ces chefs mafieux : Taechon Kim de la bande Seobang, Dongjae Lee de la bande OB, Yangeun Cho de la bande Yangeunyi... C'est à cette époque-là que les grands chefs et leurs bandes sont actifs dans la société. Ces mafias connaissent un âge d'or durant le régime de Doo-hwan Chun. Les hommes d'affaires commencent à accueillir leurs clients dans les bars à hôtesse et cela devient une culture. La politique des 3S a beaucoup contribué à l'industrie du sexe qui se propage discrètement. En fait, le boom des films érotiques n'est pas la seule explication à la relation entre l'industrie du sexe et celle du cinéma. À cette époque-là, les vidéos illégales envahissent le marché. À Séoul, il y a un centre commercial qui s'appelle Sewoon plaza. Il n'est plus aussi populaire qu'avant. Pourtant dans les années 80, c'est le paradis des gens à la recherche de composants électroniques. Plus tard, c'est le centre commercial de Yongsan qui prend cette place et aujourd'hui, je crois savoir que le marché sur Internet est beaucoup plus important. Dans les années 80 où le Sewoon plaza est dans la tête de tout le monde, on disait même que si tous les magasins s'unissaient, ils pourraient construire un char d'assaut. Le Royaume des vidéos rouges (à savoir pornographiques) est l'expression qui décrit le Sewoon plaza de l'époque. C'est un marché sur lequel circulaient les vidéos illégales et les vidéos pornographiques, à une grande échelle. En Corée, une véritable loi sur les droits d'auteur apparaît en 1987. C'est pour cette raison que durant régime de Chun, cet endroit est le lieu où les marchands vous retiennent le bras et vous proposent des vidéos pornographiques. À la fin de son régime, la drogue et la surconsommation deviennent un véritable fléau de société. En regardant tout cela, il semble que le régime de Chun a encouragé le plaisir et la consommation de manière discrète pour maintenir son pouvoir. Je vous ai dit à l'instant que la drogue et la surconsommation était devenu un grand problème social. Je



pense que ce sont les effets pervers de cette politique de l'ombre. La télévision couleur est un autre facteur qui a changé la vie des Coréens durant le régime. Les lecteurs vidéo et les jeux vidéos gagnent en popularité. Certains disent que la diffusion rapide des télévisions couleurs est le fait de facteurs extérieurs. À cette époque-là, les États-Unis limitent l'importation de télés couleurs produites en Corée à 300 000 par an. Il y avait donc beaucoup de stock. Dans ce contexte, le régime décide d'autoriser la diffusion des émissions en couleur. Chung-hee Park n'est pas du tout favorable à la télévision couleur. L'industrie de la télé ne s'intéresse donc pas au marché intérieur. il n'en est même pas question. L'autorisation de la télé couleur par le régime est très soudaine et les entreprises ne sont pas prêtes pour ce changement inattendu. En somme, la Corée est déjà en possession de la technologie pour diffuser en couleur mais la distribution de téléviseurs est empêchée pour des raisons politiques. La généralisation des émissions en couleur provoque la confusion au début. À l'époque, la Corée compte 7 millions de téléviseurs. Il faut donc les remplacer et ça demande du temps. Certains affirment que la diffusion en couleur est une partie de la stratégie de propagande du régime. Ils n'ont pas complètement tort. Le lendemain de l'annonce de la fusion et de la suppression des médias, commence la diffusion en couleur. Il est bien légitime de penser qu'il y a une arrière-pensée. Beaucoup de Coréens de l'époque appellent cette télé la « boîte à idiots ». Même aujourd'hui, certains l'appellent toujours ainsi. On disait aussi que la télé était un appareil qui rendait les spectateurs passifs. Certains affirment la même chose encore aujourd'hui. Il me semble que ces idées sont influencées par les pensées élitistes. Il y avait donc une méfiance certaine pour la télé couleur chez le peuple. Malgré cela, les télévisions couleurs connaissent une diffusion rapide et révolutionne l'industrie de cinéma. Le seul fait de voir la télévision en couleur a beaucoup amélioré la qualité de l'expérience des spectateurs. La distribution de la télévision couleur est donc un symbole qui montre la tendance du régime à la tolérance vis-à-vis de la recherche du plaisir et de la surconsommation. Vous suivez ? Nous avons abordé la politique du régime de Chun qui a opprimé et encouragé en même temps les médias de masse. Je ne sais pas si l'on peut qualifier ça de stratégie de la carotte et du bâton. La prochaine partie sera consacrée aux caractéristiques du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et à la réaction de la société contre l'ère d'oppression.

## 4<sup>ème</sup> partie |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Cette partie s'intitule «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 La politique culturelle du régime de Chung-hee Park des années 70 met fréquemment le nationalisme en avant. Les slogans comme « point de vue historique autonome » et « éducation favorisant l'identité nationale » montrent la logique nationaliste du régime. À part ces expressions, il utilise beaucoup les mots nation, peuple ou citoyen. Sur le même principe, le gouvernement met en œuvre beaucoup de politiques pour découvrir et développer la culture traditionnelle. Le patrimoine culturel tangible et intangible est répertorié et des projets d'aménagement des sites historiques sont menés. Si le régime a tenté de semer la notion de peuple dans les cœurs, c'est pour unir ce dernier autour de son dirigeant Chung-hee Park. C'est pourquoi certains intellectuels de l'époque souhaitent déplacer ce nationalisme volontaire vers le mouvement de culture populaire. Ils tentent d'éloigner le peuple de la classe dominante et de reconstruire une identité par le bas. Ce mouvement est une réaction à la domination oppressante qui illustre bien la résistance de la culture pop. L'engagement du monde de l'art pour le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représente aussi l'entrée d'une sous-culture plutôt activiste dans la culture populaire. L'année 1980 marque un tournant pour le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Le mouvement de démocratisation de Gwangju change la caractéristique de ce mouvement. La société est tellement bouleversée que le mouvement culturel se transforme en mouvement radical et révolutionnaire. Les ouvriers, les agriculteurs, les pauvres des villes, etc., et beaucoup d'acteurs participent à ce mouvement. L'année 1987 marque un autre tournant. Avec l'adoption du suffrage direct pour l'élection présidentielle, un grand progrès pour la démocratie du pays s'opère, le mouvement devient plus populaire. On peut dire qu'à partir de ce moment, le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commence à intégrer le monde de la culture populaire.

Pour être plus concret sur les caractéristiques de ce mouvement, on va revenir à une période un peu éloignée. Le régime de Doo-hwan Chun tente de détourner l'attention du peuple à l'aide de la culture pop mais sa politique des 3S n'est pas son seul outil. Il en existe un autre très intéressant. Avez-vous déjà entendu parler de Gukpung 81 ? Certains de nos étudiants d'un certain âge diront certainement « Gukpung 81 ? Oui, j'ai déjà vu une vidéo sur cet événement. » Je pense que c'est une clé pour comprendre la situation d'alors. Selon Changnam Kim, Gukpung 81 montre bien le côté ostentatoire de la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Cet événement a eu lieu tout juste un an après le mouvement de démocratisation du 18 mai, sur la place Yeouido. Comme cela risque d'évoquer le mouvement du 18 mai 1980, jour où beaucoup de citoyens ont été tués, l'organisation de cet événement inquiète grandement le régime. Toutefois, Chun essaya de changer l'ambiance du premier anniversaire du mouvement 18 mai, en organisant un événement de grande envergure. Selon moi, c'est le sens de cet événement. Au total, environ 14 000 personnes participent, incluant 194 universités du pays, 244 clubs



d'étudiants et de nombreuses célébrités. En moyenne, entre 600 000 à 1 000 000 de personnes sont mobilisées pour cette grande fête culturelle. En regardant la date et le programme, on peut dire que l'évènement avait clairement pour but de calmer la colère populaire au sujet du mouvement du 18 mai de l'année passée. Il faut reconnaître qu'il y avait aussi un côté positif à la culture populaire comme la remise au goût du jour des jeux traditionnels coréens. Mais la plupart du programme de l'évènement est composé de spectacles exotiques. Raison pour laquelle il est qualifié d'évènement purement stratégique destiné à éviter les critiques et à atteindre l'harmonie nationale. Le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s'oppose à la politique culturelle du régime représenté par les événements Gukpung 81 et cherche à retrouver les racines coréennes. Donc, avec le temps, le mouvement évolue pour se concentrer sur la recherche de ses racines. C'est à cette époque-là que chaque université crée des clubs tels que des clubs de chant, ou des événements comme les grandes fêtes Daedong. Parmi les magazines littéraires figure Littérature Pratique, créé en 1980. On peut savoir que sa création est inspirée par le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Le slogan sur son premier numéro indiquait « revue irrégulière pour la pratique littéraire à l'ère populaire ». Cette revue publie non seulement des articles d'intellectuels progressistes mais aussi des articles écrits par des ouvriers et des agriculteurs. C'est donc une revue qui montre bien les caractéristiques et la profondeur du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À mon sens, l'année 1984, est aussi une année marquante. Parmi les groupes de chant créés à cette époque figure le groupe Saebyeok (aube) Comment a-t-il été créé ? Plusieurs chanteurs de différents clubs de chant universitaires se sont rassemblés pour chanter des chansons populaires. Leur chanson *Notre champ perdu* une nouvelle fois illustre les caractéristiques du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Le mouvement s'est propagé sous la forme d'art théâtral traditionnel et de chanson folklorique. Bien sûr, on peut observer ce même mouvement dans le monde du film et de l'art. La Commission pour le Mouvement Populaire et Démocratique, créée en 1984 est au cœur du mouvement. De nombreuses commissions ont pour but de créer une nouvelle culture avec la participation du peuple, et la Commission pour le Mouvement Populaire et Démocratique joue un rôle clé de rassemblement. À propos de ce mouvement, je vous ai dit que l'année 1984 était une année marquante. C'est l'année où des étudiants ayant été expulsés sont réintégrés. Le mouvement pour la démocratisation de l'université se développe avec la restauration des associations d'étudiants. Cela se passe aussi en 1984. Le mouvement s'organise de plus en plus et crée une union nationale des étudiants. D'un côté, on peut dire que la culture universitaire a perdu de sa liberté et de sa sensibilité romantique et qu'elle est devenue trop politique et idéologique et qu'elle devient ainsi l'épicentre du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D'un autre côté, la culture activiste marquée par les différents clubs universitaires comme ceux de danse masquée et de chant illustre bien la lutte des jeunes contre cette dure société. Et cette lutte avait de la valeur. Les Manifestations démocratiques de juin 1987 éveille une aspiration pour la démocratie chez les Coréens et le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montre la voie. Le slogan « démocratiser le mouvement » gagne de plus en plus en popularité. En 1988, la fédération coréenne des



artistes populaires se crée. Cette organisation regroupe 839 artistes issus de divers domaines tels que la littérature, la peinture, le théâtre, le cinéma, la musique, la danse, l'architecture, la photographie, etc. Sur le bâtiment de la faculté des lettres de l'université de Kyung Hee où je suis professeur, il y a une peinture murale. Le titre de l'œuvre est « Jeune ». Il y a eu un grand débat autour de cela, mais l'œuvre a finalement pris la forme d'une peinture murale. Différents clubs comme « la communauté des activités ludiques d'art », « Han Geurim » et « Jjokbit » ont participé à sa réalisation en fondant « la commission mixte pour la peinture murale ». À cette époque-là, les universités sont l'épicentre du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et ce sont elles qui en sont le moteur. La peinture murale a bien capté l'esprit de ce mouvement. Hongjun Yoo, l'ancien chef de l'Administration du patrimoine culturel de Corée, a déclaré : « cette œuvre est le fruit de l'art populaire, qui a contribué à la propagation du mouvement et qui restera toujours dans l'histoire de l'art coréen. » Voilà. Comment la trouvez-vous ? L'esprit d'un jeune représentant le peuple, ouvriers et agriculteurs compris... Vous le ressentez en le voyant ? Comme il serait dommage de se limiter au domaine de peinture, je vais maintenant vous parler d'un chant populaire qui a marqué cette période. Son titre est « Pin, pin, pin vert ». Chihwan Ahn compose cette chanson en 1986, quand Jongho Ahn, un de ces aînés du même club de chant de l'université Yonsei, est emprisonné. Chihwan Ahn la chante pour la première fois lors de la campagne électorale du conseil des étudiants de l'université. Durant la même année, le fameux groupe de chant Aube sort un album intitulé « Chanson de Libération » qui est interdit à l'époque. La chanson d'Ahn devient populaire avec cet album. Après, un autre groupe de chant populaire Noraereul Chatneun Saramdeul qui signifie « personnes qui cherchent des chansons », souvent appelé « No Chat Sa », de manière abrégée, intègre la chanson dans son deuxième album. C'est la première chanson populaire à sortir sans être censurée et à entrer dans le classement des chansons pop de l'époque. C'est donc une chanson très importante. Je vous laisse apprécier la chanson en lisant les paroles. Et si on lisait les paroles.

*Ce monde fendu où se lève un vent violent  
Les larmes des mères s'enfoncent au plus profond de mon âme  
Vers un monde libre où le peuple est maître  
Jamais je n'arrêterai de ramer sur les vagues même si la rivière me recouvrira de  
vase verte*

*Pin, pin, pin vert Ne trembles pas sous le vent d'est  
Aux pieds des barreaux où tu es attaché On se verra sain et sauf*

*Pin, pin, pin vert Ne trembles pas sous le vent d'est  
Aux pieds des barreaux où tu es attaché On se verra sain et sauf  
Aux pieds des barreaux où tu es attaché On se verra sain et sauf*



Il n'est pas nécessaire de comprendre tous les mots. Il suffit de juste de réfléchir à l'état d'esprit d'un jeune qui vivait ces années 80 marquées par le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Ce n'est peut-être pas, pour vous, une chanson aussi belle et raffinée que la pop 'aujourd'hui. Elle est très différente en apparence. mais, l'authenticité est un concept subjectif et l'impression peut être différente selon les personnes. J'espère que vous en découvrez vous-même l'authenticité.



## 5<sup>ème</sup> partie | Conclusion

Le sujet d'aujourd'hui était « la culture pop en tant que mouvement social de domination et de résistance » On a vu les caractéristiques de la période à travers *Madame Aema* et *Les Haitai Tigers*. On a réfléchi sur le sens de la politique de fusion et de suppression de certains médias, des directives sur la presse, de la politique des 3S et la distribution des télévisions couleurs. On a aussi évoqué l'évolution du mouvement culturel populaire en essayant de ressentir l'ambiance de cette période. Je pense que l'année 1987 marque un grand tournant dans l'histoire de la culture pop coréenne. Car à partir de cette année, l'ère où régnait domination, censure, oppression et restriction commencent à s'effriter. Je dirais même que c'est à partir de cette année que les contenus culturels coréens et la K-culture développent leur potentiel. Si on ne peut garantir la liberté des créateurs et du public, Il est impossible de créer des contenus originaux de qualité.

Notre prochain cours sera consacré à l'apparition d'une nouvelle génération et à la réforme du marché de la consommation. On va voir de plus près les divers domaines de la culture pop qui connaissent de nombreux changements après 1987. Même pour vous, les étudiants coréens, le contenu des cours abordé jusqu'à aujourd'hui, ne vous est pas familier. Car vous n'avez pas vraiment vécu cette période. Bien sûr, pour les étudiants plus âgés, on pourrait dire que ces cours vous ont fait revivre ce que vous avez déjà vécu. Évidemment, ce ne sont pas des cultures que l'on a tous vécu ensemble. À partir du prochain cours, vous allez apprendre un contenu beaucoup plus familier. Vous allez voir beaucoup de noms et d'œuvres qui vous sont connus. C'est fini pour aujourd'hui. Je vous verrai au prochain cours. Merci.

